

일산병원기금 회사 활발 김래원 불자 1억원 기증

불교인들의 불교종합병원 건립 기금 회사가 이어지고 있다. 불교신자인 김래원 씨가 지난 13일 본교에 1억원을 기증했으며 △관은주 불교아동학과 교수가 3천만원을 △신흥사 주시 성일 스님이 지난 8일 1천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명법사도 오는 20일 상당사에서 1천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상당식을 맞아 불교신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캠 교원보직인사 발령 직원보직인사도 함께

본교는 오늘(19일)자로 양 캠퍼스 교원 보직인사와 지난 15일자로 직원 보직인사를 발령했다. 서울캠은 보직교수에 △영상정 보통신대학원 교학부장=조형제(멀티미디어학) △불교문화연구원장=권기중(불교학) △경계경영연구원장=정용근(회계학) △교육연구원장=박명희(가정교육학)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김호성(인도철학)이 임명됐다. 직원 보직에는 △학생처 취업지원팀장=이성진 △대학원 교학과장=한문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남 준 △교육방송국장=김종진 △사회교육원 교학과장=차진수가 임명됐다.

경주캠은 △사회과학대학원장=윤진호(회계학) △기획처장=김영재(경영학) △교무처장=변정용(컴퓨터학)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이태경(컴퓨터학) △정각원 교법사=김성철(불교학)이 임명됐고, 직원 보직에는 △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이강석 △교무처 학생선발실장=차준환이 임명됐다.

본사 김호성 주간 부임



본사 22대 주간에 김호성(인도철학)교수가 오늘(19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김호성 주간은 본교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7년 본교에 부임했다.

중도 제1열람실 문제 일단락

기증품 본관 소극장으로 이전 검토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학교본부간의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문제협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학교측이 기증품 이전을 고려함에 따라 우선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증품 인수위원회'가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휴관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 서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진행된 면담에서 총학생회는 제1열람실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에 학교측은 "기증품 분류를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1열람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수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기증품을 교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불가피할 경우 외부 시설로 이전하

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본관 소극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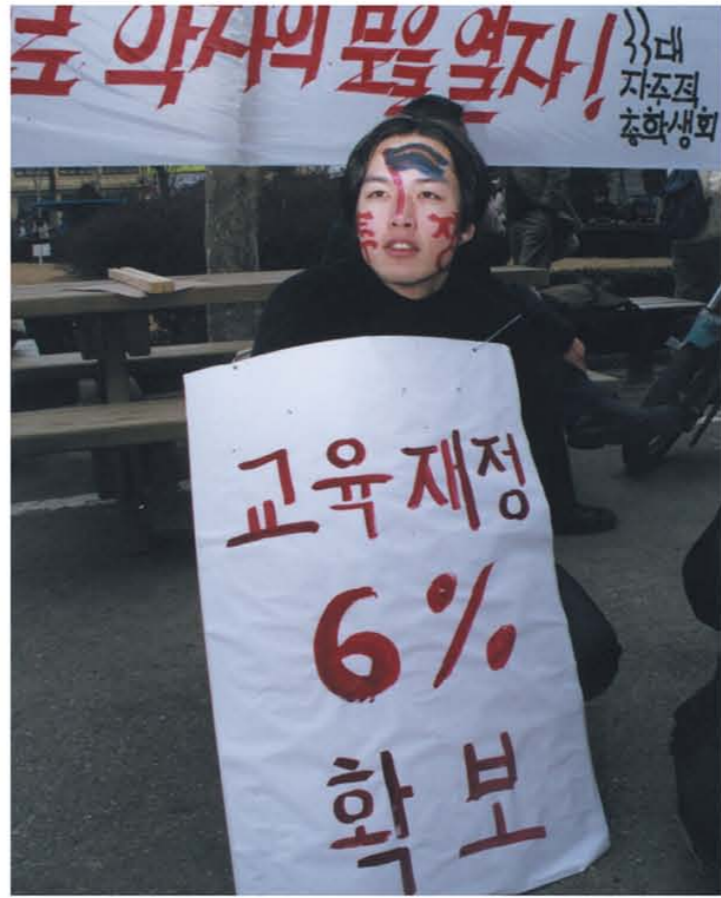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증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제1열람실에 전체 기증품의 50%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지만, 황영수 사무처장은 "기증자가 제1열람실 휴관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사를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다"며 "기증자가 학생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기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총학생회는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밝혔듯이 기증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학교측과 함께 기증자를 만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면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도 기증자와 면담을 갖고 기증을 권유할

예정이다.

한편, 4천500여평 규모로 강의동과 학군단 건물이 있는 곳에 건립될 도서관은 오는 4월 중으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배치와 관련해 학교본부와 도서관, 학생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측은 자료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학교본부는 열람실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회 역시 학생들이 도서관 공간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도서관관이 되길 바란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결의 ... 학원지주회 투쟁선포식이 지난 1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몇몇 단과대는 특색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해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재정 6%확보' 등의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생협 출자금 받아가세요"

이익배당금도 홍보 부족으로 지급을 5%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반환하고 있는 출자금과 이익배당금이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졸업식 전후 약 2주동안 교과과목을 통해 지급되는 생활 출자금을 지난해에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이 교과과목에서 학사모를 대어할 때 출자금을 나눠주고 있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졸업식 후에도 생협 사무국에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지만 찾은 오는 학생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보관기간이 끝나면 생협의 수입에산으로 편성된다.

한 졸업생은 "졸업식 당일 전까지 생협 출자금 환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생활협동조합의 홍보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E-mail로 알려주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년 5월에 지급되는 이익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받아 가는 학생이 전체 조합원의 5%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과대의 이주연 양은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할 때 출자금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익금을 IC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도 학생들이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의 한 학생은 "IC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일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면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생협은 출자금 금액과 이익 배당금이 모든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법대 비대위, 심교수 사건 성명서 발표

오늘(19일) 연학장·심교수 초청 공개질의

심희기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대 학생들과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구성된 법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손빈환·법4, 이하 비대위)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심교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심교수의 재임용 탈락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당했다"며 법대 교원인사평가위원회와 학교측에 심교수 탈

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비대 위측은 오늘(19일) 비상임시총회에서 심교수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가영 법과대학장과 심희기 교수를 각각 초청해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갖는다.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는 학교측과 법과대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심사자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오늘(19일)부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심희기 교수 재

임용 탈락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심교수의 재임용 탈락전 배경했던 강의는 담당교수와 강의실이 교체돼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심교수는 3학년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강의를 따로 진행하고 있으며, 15명 가량의 학생이 직접 출석부를 만들어 심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희기 교수는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형법총론도 학생들이 원하면 강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SRC·ERC 해외연구소 설치

본교 양자가능반도체연구소(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와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이하 ERC)는 각각 미국과 일본에 연구분소를 설치한다.

SRC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 연구분소를 설립했다. 지난 1일 문을 연 UCLA 연구분소는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6천만원씩을 지원하고, SRC 연구원이 파견된다.

ERC는 지난 1일 일본 Tohoku 대학으로부터 6천만원을 지원받아 일본 현지에서 연구분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 불교학의 ...' 세미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불교 조계종 종립학 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담스님)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청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전재성 한국 불교학연구소장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본교 사회교육원 김중명 교수가 '동국대 불교학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학 연구의 현주소'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 후, 본교 박경준(불교학) 교수, 서울대 박태당(철학) 교수, 연세대 신규탁(철학) 교수의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사 수습기자 선발때문에 26일자 신문은 없습니다. 다음 신문은 4월 2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면안내

경산시 양민학살 현장을 찾아서 4면



등 활동을 알아본다.

역사 재해석의 의의와 사례 5면

스크린쿼터제를 수호하라 7면

보리수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정성본 (불교문화대 선학)

'유교경'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슬데없이 한가히 세월을 보내는 게으른 생활을 하지 말라. 나는 방일(放逸)하지 않고 수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正覺)을 이루었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이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방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 무상한 것이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인류의 역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한 성인들은 한결같이 부처님과 같이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일체중생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시키는 인류의 죄인이 된다.

'법구경'에도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불사의 경지인 것이며, 게으름에 빠진 삶은 죽음의 생활과 같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은 죽는 일이 없으며, 게으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설하고 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학자가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한 삶을 사는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곧 자신의 삶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향상의 일을 위해 대학생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수습기자 모집 딱 3일 남았습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모집인원 : 서울·경주 캠퍼스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인터넷 기자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 3월 21일(수) 오후 5시
선발방법 : 필기시험(상식과 기사작성 등)과 면접
선발일시 : 3월 22일(목) 오후 6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

동대신문사

본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원타임로그인 시스템 도입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과)에서 본교 홈페이지에 원타임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매번 로그인을 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수·직원들의 학사행정 정보관도 개설돼 교수·직원들의 급여와 연말정산 등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정보나 부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정보관리실은 지난 9일부터 3일간 공용 컴퓨터실습실 PC 300여대를 교체했다.

이번에 교체된 PC는 1학년 교양수업이 진행되는 실습실에 배치했으며, 하이팩 의자와 테이블도 새것으로 바뀌었다.

리영자 교수 출판 기념회 '불교와 여성' '천태불교학'

지난달 본교에서 정년퇴임한 리영자(불교학) 교수의 저서 '천태불교학' '불교와 여성' 출판을 축하하는 기념회가 오는 26일 5시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천태종의 불교사상을 전공하였으며 여성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리영자 교수의 제자들이 정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모임이다.

SRC, 22일부터 워크샵 개최 Battacharya 교수 초청 강연

양자가능반도체연구소(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는 오는 22일부터 이틀동안 2001년 양자가능 반도체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항관 2층 SRC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미국 미시간 대학의 Battacharya 교수를 초청해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Spintronics와 DMS 물질에 대한 강연과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총 가을학술제 세미나팀 오늘(19일)부터 26일까지 접수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 박사과정 1학기)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가을 학술제를 참가할 세미나팀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4명 이상의 대학원생 또는 수료생으로 연구성과를 제출계획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총학생회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25개 세미나팀에게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연구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끼장터 21일 정오 개장 재학생 누구나 신청가능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오는 21일 이번 학기 끼장터를 개장한다.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계산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끼장터는 노래, 풍물, 에어로빅, 개그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여학생실에서 받으며, 출연자들에게는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끼장터가 동학의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숨겨진 끼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복위 2주간 '감옥농성' 국보법 부당성 알릴 예정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에서 계획한 '감옥농성'이 오는 26일부터 2주간 불상 앞에서 벌어진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합법화, 학생 대표자 수배 반대 등을 기치로 하는 이번 시위에서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정치수배자들을 위한 서명·모금 운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번 농성과 관련해 김태광 학생복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록원 매점 가격 인하 오는 23일까지 11개 품목

상록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점의 일부품목을 할인판매 한다.

△몽골통통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빈츠를 1200원에서 900원으로 △스케익오프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국회 샌드를 1800원에서 1300원으로 할인하는 등 모두 1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다.

총학, 학자투 선포식 진행

등록금 인상반대·모집단위광역화 철회 요구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는 △등록금 인상 반대 △모집단위광역화 반대 △교육재정 6%확보와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원 자주화 투쟁 선포식(이하 학자투선)을 지난 1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했다.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번 학자투선포식은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졌다. 김성호(정보관리3) 경영대 학생회장은 "학교측은 지난해 2001년 등록금 책정시 학생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등록금 5% 인상을 먼저 고지한 후 협의를 가졌다"며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은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기보다 설득하려 한다"며 "학생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집단위광역화로 인한 폐해도 지적됐다. 이재광(철4) 문과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전공선택이 인기학과로 편중되고 기초학문분야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총장실을 방문해 △등록금 인상을 학생회

와 협의해 다시 조정할 것 △2000년도 가결산을 공개할 것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오는 5월과 9월 말 학생회와 논의할 것 △학부제·모집단위광역화와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 △수강신청, 복수전공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제2도서관과 관련해 도서관 학생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의 요구안을 학교측에 제출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2차 협의가 진행되는 오는 21일까지 학교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요구안을 제출한 후 학생들은 본관을 비롯해 각자 잡아 당기는 '본관 넘어뜨리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에서 줄이 끊어져 교직원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학자총결기를 발의 예정이며, 이날 단과대 별로 걷은 쌀을 등록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학원자주화와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학생 총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 소속 대학들과 공동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이유인즉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전용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아 상록원을 이용하는 장에 학생들은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는 장애인 화장실이 형식적인 걸치레에 그치는 격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장애인 화장실은 말 그대로 장에 있는 화장실?"

중도 도둑

○...최근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이 지갑을 도둑맞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중앙도서관이 신입생들을 위해 학생 인증기를 작동시키지 않자 도둑들이 극성이라고.

도둑 때문에 학생들이 화장실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니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규제할 방안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도서관 도자기보다 도둑 좀 잡아주세요"

화이트 데이

○...지난 14일 중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알아보니 '학원자주화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느라 들려오는 각종 소음 때문에 자리를 뜰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학자투 선포식'은 재학생의 참여를 외쳤지만 도서관 이용학생들에게 아무런 양해 없이 진행돼 공부방해를 일으켰다는데.

게다가 정작 학생들의 호응도 크지 않아 그 근본 취지를 벗어난 격이니, 이에 도서관을 나서서 한 학생 왈, "머릿속이 깨끗해요! 화~이~트"

파로마!

○...명진관에는 모 가구 광고 CF를 찍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수업중 문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창에 각종 상업광고와 동아리 모집광고가 붙어 있어 학생들이 강의실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문을 벌컥 열어버린다고.

학생들은 강의실 문 가까이 귀를 대야만 강의실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파로마? 캐트릴 파? 깬다. 힘쓸 노? 노력한다. 악귀 마 : 악적인 존재=수업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하는 악적인 존재"

첫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임금협상·단체협약 등 논의

올해 첫 정기노사협의회가 지난 13일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다시 진행된 이날 노사협의회에는 학교측에서 송석구 총장과 황영수 사무처장, 직원노조 측에서는 김정대 서울캠 노조위원장과 이진형 경주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은 앞으로 진행될 임금협상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약의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은 3월 안에 1차 교섭을 시작해 4월에 본격적으로 진행한 후 5월 초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최근 인사가 결원이 많다고 노조가 지적하자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여 인사 발령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측은 기술직 노동자가 적급 승진이 느린 것 등 99년 단체협약 가운데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학교측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학교측으로부터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노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작업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해 분석 중이다. 이는 앞으로 임금·단체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몸짓사랑(?) ... 지난 15일 불상 앞에서 손짓사랑회 회원들이 GOD의 '츨을 하나'에 맞추어 수화공연을 펼쳤다. 이러한 동아리 홍보 작전은 동아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생협 이사회·준비위 진행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 확정

제29차 생협이사회와 제1차 생협 독립법인 준비위원회의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허천택(영어영문학) 부총장,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 김덕기(경영4)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해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약정서, 규약 등을 4월까지 정리 △대의원 총회를 6월 안에 개최 △생협독립법인 법적 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 등 2001년도 독립준비위원회의의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사회는 2001년 생협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켰다.

단과대 보궐선거 실시 예술대 28일·야중 다음달 2일

지난해 11월에 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한 단과대의 보궐선거가 각 단위별로 실시된다.

지난 14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술대는 차중철(영화3)군이 단독 출마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선거를 치른다.

또한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양희창(반도체과학3)·정재수(경영4)조가 단독으로 후보등록, 오는 4월 2일부터 3일간 선거가 진행된다. 그러나 아직 출마자가 없는 이과대, 법과대, 정보산업대는 오는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4.19 등산대회 신청 접수

26일부터 교학과·학생복지실에서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오는 26일부터 '제32회 4.19기년 동국인 등산대회' 참가 접수를 받는다.

4.19혁명 41주년을 맞이해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이번 등산대회는 다음달 13일 북한산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과 단체팀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에, 4인 1조팀과 동아리단체팀은 학생복지실에 참가인원 명단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등산대회는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호(제1313호 3월12일자) '교수교체·분반 빈번' 기사중 전기공학과의 생지대, 문과대의 몇몇 학과로 정정합니다. 전기공학과 전공과목은 평균 42.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3월의 심리검사 안내

새로운 얼굴, 반가운 동기·선배들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대와 설렘들... 이 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검사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성검사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 따스한 오후, 친구와 손잡고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오세요!!

검사종류	날짜	시간	소요시간	비용	장소
MBTI (성격유형검사)	3월 13일 (화)	오후 2시	30~40분	무료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3월 19일 (월)				
	3월 29일 (목)				
학생과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3월 15일 (목)	오후 2시	1시간 40분	2천원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3월 20일 (화)				
	3월 26일 (월)				
적성탐색검사	3월 16일 (금)	오후 2시	30분	무료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3월 22일 (목)				
	3월 27일 (화)				

※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날짜·시간에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구내전화 3930, 3931)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 학과 또는 동아리 단위의 단체 검사(20명 내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출장 검사도 가능합니다.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대상자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
- 실습기간 : 2001. 4. 2(월) ~ 4. 28(토) 4주간
- 실습비 : 일급 칠만원정(₩70,000) - 비사범계 교과과정 이수자
- 실습비 접수 기간
2001. 3. 21(수) ~ 3. 22(목) 16시까지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2001. 3. 30(금) 17:30 사범대 소강당(학림관)
- 교육실습 일시 및 명할 교부
2001. 3. 30(금) 오리엔테이션 후
1) 사범대생 : 각 학과별 배부
2) 비사범대생 : 교학과에서 일괄 배부

ROTC후보생 군장학생 모집

학군단에서는 2002년도 ROTC후보생과 2001년도 군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패기 있고 용기있는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 모집기간
ROTC후보생 : 5. 12(토)까지
군 장 학생 : 4. 7(토)까지
- 지원자격
ROTC후보생 : 2학년 재학생
군 장 학생 : 1, 2학년 재학생 중 대학성적 C학점 이상자
- 문의 : 2260-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취업희망원 제출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2001년 8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추천 및 알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취업희망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졸업예정자분들께서는 취업희망원을 작성하시어 학생처 취업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희망원 양식은 취업지원팀 및 각 대학 교학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5)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과 문제점

새만금사업 올바른 처리방안 모색해야

얼마전 농림부가 내놓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20문 20답)"라는 대국민 설득 자료를 보고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다르다는 주장이 무척 인상적이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간척사업 이해 필요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습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다시 생각할 문제다. 나일강 하구나 브라마푸트라강 하구의 삼각주를 보자.

들어들었다기 때문이다. 쌓이고 다져져서 낮아지면 또 다시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삼각주의 크기와 높이가 유지된다.

방조제 외측에 쌓이지 않고 수로나 항구에 퇴적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북편에 자리잡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수로나 항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네덜란드의 간척은 점진적으로 바다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해일을 막아내기 위해 일종의 인공사구인 모래둑을 쌓는 것이었다.

나라의 그것과는 몇몇 관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쥘다지 지구는 사주섬으로 보호되어 있는 곳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률이 급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백년 확률의 초대형 해일도 그때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한다.

시화호를 타산지석으로

지난 해 어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새만금사업에 관한 TV토론회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농지가 풍부한 나라들도 간척을 하는데, 땅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왜 못하느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유근배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습지의 공익성을 들어 간척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습지의 경우에는 해안역관리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가지고 철저히 보전하고 있다.

우리는 시화간척지구 등 여러 대형국책 사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그토록 큰 희생을 치루면서도 정작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2차 정상회담 준비

제2의 '공동선언' 범국민운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문 마지막 부분이다. 이 약속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 아래 시민·사회 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 답방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육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 강연회 등을 준비해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최규업 자주통일위원장의 말처럼 통일 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합 정광훈 위원장의 "전농 소속 농민들이 아니라 모든 농민이 통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각종 환영 행사도 줄을 이을 예정이다. 전국연합은 4월경에 가칭 '범국민환영기구'를 결성해 김위원장 답방 환영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한총련도 김위원장 환영 문화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나로 모든 통일연대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경실련 통일협회, 통일맞이 등 28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결성됐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것은 아니다. 최근 본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 발언에 따른 파문확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위원장 답방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연합 한홍복 집행위원장은 "4월 답방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볼 때 5월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방 시기를 전망한다.

이는 최근 다소 정체된 분위기인 남북 관계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예상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남한도 미국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으로 보인다. 본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남한의 대북정책이 미국 입장으로 기술자이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위원장 답방을 준비하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 눈길이 모아진다. 이들 단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일 행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으로 진행될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이상으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말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교수제임용제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많은 대학에서 제임용심사에 탈락하는 교수들이 부쩍 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본교 법과대학 심회기 교수가 지난달 제임용에서 탈락해, 교수회를 비롯한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탈락사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교수 제임용 기준이나 실시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아 대학이 교수를 제임용에서 탈락시킬 때는 탈락 이유를 통보할 의무조차 없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수제임용제는 올해로 폐지, 내년부터는 '교수계약임용제'가 모든 국·공·사립대에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욱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하는 총학생회를 바라며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총학생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입학식 때 등록금 협의와 자치권 확보에 앞장섰다는 총학생회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지취를 감춰버렸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에서는 전체 단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찬막농성에 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등록금 협의의 전개 방향이 총학생회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찬막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학생회 행동과 입장표명에서 그들이 진정 등록금 동결과 자치권 확보를 원하는지 의문스럽다. 총학생회는 총학 선거당시 지난 해 등록금 협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올해 확실한 승리로 이끌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지난 선거유세 때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을 바꾸겠다고 외치던 총학생회의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은 지금 그들에게는 그 당시 진지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장 백승선,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전화 (02)2260-3481~2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4)770-2168

2001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3 Fax. 2268-7851

세계권의 문학사로 한·일 양국의 가깝고도 먼 거리를 극복한다

일본 메이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30면 / 1만2천원



1868~1912년까지 일본현대문학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메이지 시대 문학의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니키무라 미쓰오의 일본 메이지 문학사.

일본 다이쇼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05면 / 1만원



1910~1927년까지의 다이쇼 시대의 문학사를 현장감 있게 기술. 이 시대의 화려함 속에 깃들인 어둠을 보여주는 우이 요시미의 일본 다이쇼 문학사.

일본 쇼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92면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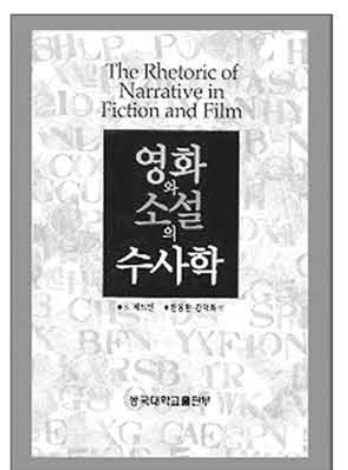


1927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자살에서 패전으로 인한 절망과 재건에 이르는, 쇼와 시대의 문학을 정신사적으로 분석한 히라노 겐의 일본 쇼와 문학사.

서사적 분야의 명저 이야기와 담론 - 소설과 영화의 서사 구조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역작.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92면 / 1만4천원



'이야기와 담론'의 저자, S-채트먼이 십 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또 하나의 서사이론의 지침서!

서사학자인 채트먼이 이 책으로 우리에게 언어 서사물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은 영화를 서사적 분석의 중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전자의 결함을 훌륭히 보완하여 영상서사를 언어 서사와 나란히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약로

뺏긴 사랑



“일방적인 RRC 한의학과 유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5일 한창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시간, 3백여명의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들이 원효관 중정에 모였다.

이들 중 5~6명은 복을 치며 흥을 돋우는가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이리 소란스럽지. 또 어떤 학생회가 들고 일어났는지?”

“이번엔 어떤 내용의 집회래?”

방금 수업을 마치고 중정을 지나치는 두 여학생은 집회의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학생들 곁으로 다가선다.

“한의대생이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나봐. 그런데 RRC가 뭐야?”

“RRC?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역 개발센터래!”

2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는 큰 소란 없이 한의대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의대 학생회는 “지난 8월 한방병원 이전과 동시에 교육 환경이 개선된 한의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대의 실험 실습과 연구 등을 위한 공간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었다.

그러나 한방병원 이전 후 학교측은 지속적인 타당대의 교육 공간 요구에 따라 최근 “한의과관에 한의대, 의대, 자연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생명 산업 연구 시설인 RRC 공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RRC 공간 유치는 학생회와의 협의 없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는데 문제가 있다.

비단 공간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에서도 학교측은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진우 기자
sniper@mail.dongguk.ac.kr



경산시 양민학살 현장을 찾아서

끝없이 발견되는 미군 양민학살 현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사과 필요

다. 전민특위가 활동을 벌인지 1년, 베일에 감춰졌던 양민학살의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인근 마을주민들을 통해 양민학살에 대해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을 줄은 몰랐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그들을 죽인 셈이지”

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불출기를 타고 떠나려온 유골들을 자주 발견했다고 얘기한다.

“양민학살 이후 피비린내 나는 물 몇년동안 흘러내려”

100m 되는 수직굴을 가득 메운 사체가 두 갈래로 나뉘어진 수평굴의 얇은 벽을 뚫고 새어 나와 마을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떠나려온 것이다.

하지만 유골들을 발견하면서도 유족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이들에게 강요한 것은 오로지 침묵뿐이었다.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피가 섞였는지 붉은 색을 띠어서 그 물을 마을사람 누구도 먹거나 사용할 엄두도 못냈지. 몇 년동안 계속 흘러내려 왔어”

마을 주민의 증언은 당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정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뿐, 어떠한 사과나 배상은 물론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도유족회의 박희춘회장은 “그 동안 정부에 수 차례 진정과 탄원을 했지만 정부에 그 당시 사람이거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말로 피해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6일 광산앞에 경산시민단체 및 유족들이 모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 및 발굴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각 정당과 청와대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진상규명 뿐만이 아니라 대량학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전민특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전민특위 관계자는 민족의 이름으로 한국전



▲유골더미 속에서 머리에 총자국이 선명한 해골이 눈에 띈다.
▲양민학살 대책위 장명수 위원장은 발굴현장의 참혹함을 설명하고 있다.
▼1950년 7월 30일자 대구일보는 '대구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광산에서 학살된 약 1,500명의 명단으로 추정된다.'



쟁 당시 미국이 저지른 학살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 것만이 50년간 진실이 규명되기만을 기다리며 방치되어 있던 폐 코발트 광산 속 유골을 편히 잠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처럼 잠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이들을 편안히 눈감게 해야 하네”

진상규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는 장명수 위원장의 얼굴에 확고한 의지가 가득했다.

박현호 기자
blue@mail.dongguk.ac.kr



여성 평등 실현위한 입법노력 절실

근로조건 개선·성범죄 처벌 강화·성씨 선택의 자유 인정돼야

여성, 나라의 차기!

여성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본사 사회부는 길 길이 먼 여성의 평등한 인권확보를 위해 3회에 걸친 기획을 다루고자 한다.

- ①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얼룩진 사회 현실
- ② 경제위기로 다시 불거진 여성노동자 문제
- ③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 왔으며 여성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여성들이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법과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 청원했다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여성노동 관련법들을 들 수 있다. 여성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간접차별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책임 강화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 시설은 사립·민간시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보육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높이고 △영아 장애아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표준보육단가 현실화 △보육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등 보육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즉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거나 '동'이 아닌 '저항'에 기초한 강간개념을 개정할 것,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동성간 강간, 성기 이물질 삽입,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 수사 및 재판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이 광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매매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매춘 여성들에 대한 재활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윤락 행위등방지법은 매춘여성들을 규제하고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 매춘 여성들이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매춘여성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매매춘 전반을 다루는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여성 불평등 조항으로 남아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씨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호주제 및 부계 성을 일차적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인 성차별법이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의 불평등성을 명시하고 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와 관행을 깨는 문화 전란을 개혁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장미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민중운동진영 한목소리 "우리 이제 함께 합니다"

진보 운동 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민중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비위원회'(이하 민중연대)가 발표했다.

재야, 노동, 농민 약 30개의 단체가 동참한 민중연대는 지난 96년부터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개악·IMF 등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창설된 상설공동운동위원회의 민중연대 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진영 연대기구이다.

이날 민중연대의 공동대표로 추대된 민주노동당 박종철 위원장은 "앞으로 민중민주운동진영과 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조직을 단위를 만들어 민중대회 개최, 지역민중운동, 실업문제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30일에 열리는 민중대회부터 민중진영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는 노동계와 소외계층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단일 민중운동네트워크로 최근 대우자동차 사태로 불거져 나온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민중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역사 재해석의 의미를 찾아

역사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거울

무분별한 재해석보다 본질을 인식하는 자세 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시대일수록 역사가 많이 쓰여지고, 많이 읽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못 시사적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드라마에 대한 일반인들의 과도할 정도의 관심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시 쓰여지는 역사

역사학이란 계속하여 다시 쓰여질 운명을 타고난 학문이다. 흔히 객관적 역사, 과학적 역사라는 모토 아래 학문의 엄정성과 중립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역사학이긴 하다. 그러나 역사학이란 그 자체가 그 시대마다 시대정신과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느 한 시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그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를 꼽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시대마다의 관심사의 변화에 맞추어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마련인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성행하는 방송매체를 통한 역사드라마의 유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역사드라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역사서술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사극은 우선 허구적 구도를 가진 드라마이다. 따라서 허구적 작풍에서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드라마 역시 우리 시대의 역사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역사드라마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해당 시대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시대가 해석을 가한 하나의 역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먼 훗날, 21세기초의 한국 사회를 역사학적으로 접근할 때, 그 드라마들은 이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역사 왜곡의 위험성

이렇듯 역사는 시대와 민족 및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재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때때로 이해 관련 집단들에 의해 왜곡되어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구체제의 모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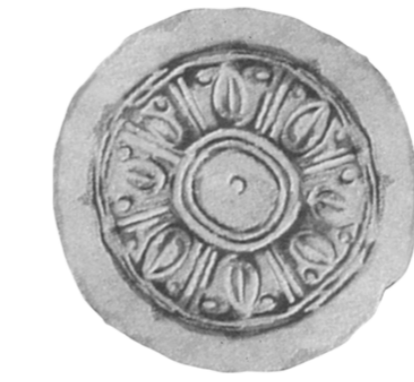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모색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반추하고 또한 재해석을 가하게 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시대에 대한 위기의 발로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년간의 일본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역사를 자국의 후속세대에게 전수한다는 것은 단지 부끄러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시대의 문제점을 역사 재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결국 그 재해석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재해석의 왜곡은 위에서 본 역사드라마의 허구적 재구성의 과정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요구에 따라 해석된 역사

서양의 경우 이전 시대나 다른 민족에 대한 재해석의 왜곡 사례는 르네상스 시기의 역사관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기는



민태진 교수의

과학 이야기 (1)

과학의 기원과 서양과학

과학(science)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지식이란 어원의 scientia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반복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정신과학과 형이하학적인 물질과학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어왔으며, 온갖 사물에 정통한 사람을 박물군자라 일컬어 왔다. 오늘날의 박사라는 말은 삼국시대부터 이 박물군자의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대 변천에 따른 지식의 변화와 그 양적 팽창에 따라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으로 나누어 취급하게 되었다. 물질과학, 즉 자연과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무 세분화되었기에 포괄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불을 발견하면서 먼저 흙을 구워 그릇을 만들었고, 구리와 같은 금속을 녹여 쇠붙이를 만드는 연금술로부터 시작되었다.

동양의 연금술에 관한 근거는 갈릴레오의 쓴 것으로 알려진 '포박자'라는 책의 내편 4권에 '금단'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것은 변화의 상징인 수은과 불변의 상징인 금을 잘 조합하여 만들고, 이를 복용하면 불로장생의 신선과 같은 도화군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양의 연금술은 미신적이면서 비현실주의적인 사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서양 연금술의 시작은 아랍의 게베르가 쓴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철학자의 돌'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찾아 잘 이용하면 아연이나 납과 같은 천한 금속으로부터 금이나 백금과 같은 값비싼 귀금속을 얻어 일확천금할 수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로지 오로지 잘 살 수 있다는 미신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사상으로 출발하였다.

이처럼 동양의 연금술이 서양의 그것에 비해 4300년이나 앞서지만 그 사상의 차이로 인하여 서양에서는 이미 17세기 경부터 실험과학이 태동했다. 이로 인하여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며 이 원자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그 성질이 다르고 서로 상호 변환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작은 알갱이로 쪼갤 수도 없다"는 새로운 물질관이 등장하였다. 아연이나 금도 서로 다른 원소라 상호 변환될 수 없으며 과거 연금술사들의 생각이 헛된 모순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중세 자연과학은 크게 발전되어 왔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퀴리 M. S. 부처는 우라늄 원소 속에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을 내는 라듐을 발견하였다. 그 후 러더퍼드는 이 라듐 원소로부터 알파입자라고도 하는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옴을 발견했으며, 이 알파입자를 질소 원자에 쬐었다니 놀랄게도 전혀 다른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다. 이로써 알파입자라고 하는 '철학자의 돌'이 드디어 발견되어 아연으로부터 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연금술사가 새로 등장한 것이다. 또 사이클로트론이나 싱크로트론이나 하는 입자가속기가 발명되어 '철학자의 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자는 '상호 변환이 가능한 작은 알갱이로 쪼갤 수도 있으며, 화학반응을 통해 질량도 변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물질관이 등장하여 질량불변의 법칙이 무너졌다. 이때 감소된 질량은 곧 에너지로 방출돼 물질과 에너지는 동등함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핵반응 에너지를 이용한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수소의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폭탄과 인공 태양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전쟁과 평화의 양면성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동서양의 연금술사들의 사상 차이로 인하여 서양의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속도는 동양에 비교할 수 없이 빨랐다.

한국고대사 연구회 회장을 만나서

“답사통해 나만의 역사관 만들 터”

공예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작가와 연출가에 의해 재해석된 사극을 그대로 믿는 일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와 더불어 역사 재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본교 사학과 내 학회인 한국 고대사 연구회 회장 박은정(사3)양을 만나 역사 재해석의 또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유적 답사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양은 사학과에서 봄가를 두 번에 걸쳐 떠나는 답사와 학회에서 준비하는 여름 겨울 답사까지 1년에 많게는 4번의 답사를 다녀오는 역사학도이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역사 이야기를 답사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라며 자신이 다녀온 답사 지역을 하나하나 되뇌이는 박은정양. 답사 일정을 정하면 곧 주제를 정하고 사전 세미나와 논문 준비로 눈 코 뜰 새 없으며, 벌써부터 이번 달 말일 '신라불교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떠나는 답사에 대한 설레임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있는 두 개의 미루사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유적으로 꼽는다. 가까운 거리에 놓인 두 작품 모두 미루사지를 복원한 것으로 하나는 허물어진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형태를 보존한 일제 때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기계로 깎고 인위적인 색깔까지 덧입혀 복원한 것으로 복원하나마나 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때 우리의 문화재 보존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TV나 책을 통해 흔하게 접하는 역사는 재미 위주가 많은 것 같다"며 "고대사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설보다는 학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을 풍부하게 경험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여기를 당부한다. "답사를 다녀면서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역사 재해석이라고 하면 학계에 공식

한국의 경우 이전 시대나 다른 민족에 대한 재해석의 왜곡 사례는 르네상스 시기의 역사관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기는

이와 관련해 오픈포유 전석환 컨텐츠 개발 팀장은 "P2P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들 사이에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P2P가 인터넷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2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된 자신의 정보를



박은정(문과대 사3)

발표된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박은정양은 끊임없는 공부와 답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이면을 스스로 찾아보고 있었다. 자칫하면 역사는 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박은정양의 이러한 탐구모습은 우리의 알팍한 역사관에도 자극되는 바가 큰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고수동정

- ▲강태원(물리학)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에서 공동연구 협의 및 자료.
- ▲송민규(반도체과학)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01년 IEICE 전자정보학회에서 논문발표.
- ▲박영길(법학)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세계우주법학회(IJSC)와 싱가포르국제법학회(SILS)가 공동주최한 '2001년 우주법대회'에 참가.
- ▲연기영(법학) =지난 3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교수 불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
- ▲유지나(영화영상학)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

P2P, 과연 제4의 물결인가

막연한 환상보다 보안·저작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MP3 파일공유프로그램인 냅스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P2P(Peer to Peer)라는 말이 우리에게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차세대 인터넷', '정보화 시대 제4의 물결'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P2P. P2P란 친구나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eer to Peer의 준말로,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야후나 엠파스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인 P2P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의 PC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 검색하고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검색엔진에 한정된 검색에서 벗어나 폭넓은 검색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P2P업체인 냅스터(www.napster.com)나 그누텔라(gnutella.wego.com) 외에 국내에는 한국판 냅스터라 불리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 실시간으로 전자상거래가 진행

되는 오픈포유(www.open4u.co.kr), 각종 소프트웨어와 자료들을 제공하는 체게바라(www.wowfree.net), 영상정보 매신저 씨프랜드(www.seefriend.co.kr) 등 많은 업체들이 P2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아우포리커뮤니케이션, 오픈포유, 대우정보시스템 등 국내 30개 P2P 업체들이 모여 한국P2P협회가 출범함으로써 P2P서비스의 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픈포유 전석환 컨텐츠 개발 팀장은 "P2P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들 사이에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P2P가 인터넷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2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해킹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냅스터의 경우처럼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음란물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만은 않다.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P2P서비스의 경우 접속된 PC끼리 서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며 "실제로 지난 1일에는 P2P프로그램인 그누텔라를 통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보안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냅스터를 통한 MP3 파일 공유를 위해 사용됐던 P2P 기술은 최근 지식관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문제로 진통을 겪는 등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P2P가 진정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나 보안등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동아투위 26주년 학술회의 열려

지난 17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26주년 기념식과 함께, 학술회의가 열렸다. '자유언론과 민주주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세부조사 실시로 불거진 언론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로 한양대 정대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성공회대 방정배 교수는 '동아투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정치권력과 아합해 사회부패를 내버려두면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썩게 마련"이라며 "여론의 다양성에 직선호가 울리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언론개혁과 사회개혁'의 연관성을 밝히고, "언론이 잘못된 구조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혁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이 증면 경쟁, 분공장 설치, 불공정 거래 등 무한경쟁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력과 손잡을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경영권과 편집권을 장악한 1인의 사주가 모든 여론을 좌우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김서중 교수는 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언론지배력과 소유지분의 반비례를 통한 소유구조 개혁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집권을 독립 △정품 이용 등 왜곡된 유통구조를 공동관제 이용으로 해결 △ABC 제도를 정착시켜 판매부수의 정확한 공개로 합리적 광고료 산출 △소수신문에 의한 시장 독과점 방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투위 상임부 위원장은 "언론인들에게 언론 자유는 비판을 위한 것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으며, 민연련 김택수 정책위원은 "동아사태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진정한 자유



이시영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학기는 캠퍼스 전체에 활기를 가득 불어넣는다. 아마도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대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모처럼 누려보는 자유로 들떠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 새내기들은 갖 시작한 대학환경에 적응하는 일부러 소속학부, 선배, 동아리의 한 식구가 되는 것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에 필자는 소속 학부의 신입생 환영회 겸 개강파티에 참석했다. 그때 만난 새내기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 날 새내기들은 소위 '캠퍼스의 자유스런 분위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지식과 학문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좋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는 것이다.

자제하지 않는 무제한적 자유는 오히려 방종이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자유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방종과 타락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의미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21세기를 흔히 지식반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남이 흔히 가지지 못한 유용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부가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모든 학생들이 주려해야 하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여 자신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대학이 학문만 연마하는 곳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신학기에 줄지어 이어지는 신입생 환영회나 개강파티에서까지 아카데미한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

놀고 즐기는 자리에서는 놀고 즐기는 일에만 열중하면 된다. 다만 파티에서 마지막 술잔을 들고 난 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슬픈 역사의 기록 “금이야 사랑해”

윤금이씨 사건 재현 ... 주한미군 범죄 경종울려

가수 안치환 씨는 그의 노래에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때의 이야기이다. 여기 가난과 매춘의 굴레 속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인 꽃이 있다.

지난 92년 10월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당시 나이 26세였던 윤금이 씨는 자궁에 플라방이, 항문에 우산대가 꽂힌 채로 살해당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사인은 '둔기 가격으로 인한 안면부 함몰과 과다출혈', 범인은 미군 부대 의무병 케네스 마블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의 주목을 받으며 분노의 외침을 불러왔지만, 결국 한미행정협정(이하 소파)에 의해 범인이 15년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오늘, 문화의 이름 빌어 우리 앞에 되살아났다.

극단 창작무대 우리과 여성문화예술기획은 공동기획 연극 '금이야 사랑해'를 무대에 올렸다. 다음달 29일까지 소극장 '오늘·한강·마너'에서 공연되는 이 연극은 세월이 무더어질대로 무더어진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1992년 10월 28일, 어느 신문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한 대학생에게서 동두천의 윤라씨가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온다. 이 한 통의 전화로 부터 시작되는 연극은 체포된 대학생의 기억을 따라 소위 양공주라 불리는 그녀들의 생활을 추적한다. '집승' 또는 '기계' 취급을 받는 그녀들의 삶은 폭력과 음주, 욕설



미군들에게 유린당하는 윤금이.

로 접철되어 있다. 극중 주인공 윤금은 이런 나날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결과는 주한미군에 의한 죽음일 뿐이다.

연출을 맡은 변영국 씨는 "윤금이 사건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중요한 것을 잃고 패배감과 이헤타산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비판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윤금이 씨 사건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김관태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소파 개정안 비준을 반대하며 할복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회는 개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들을 담고 있고 주한미군의 사적장 매향리에는 매화 향기 대신 탄약 연기만이 자욱하다. 이런 세태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사회 각지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이런 때에 문화, 그것도 연극이라는 장르를 빌려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메아리에 힘을 실어 현실에서 부르는 부활의 노래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시들어 가는 동아리에 생기를!

지금 대학가는 신선하고, 신뜻하고, 파릇파릇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 새내기들은 형형색색의 머리모양을 하고, 교복에 눌러왔던 패션감각을 유감 없이 자랑하고 나선다.

흔히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하라, 사랑하라,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동아리 생활이다. 동아리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짜여진 학과, 학부와는 달리 대학사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아리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동아리를 찾는 신입생들의 발길이 한쪽으로 물리고 있는 것이다. 새내기들이 찾지 않

는 전통 문예나 학술동아리는 어느새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 이상 문화를 고민하고 고적담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신입생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색적인 교양동아리에 넘치는 활기는 대단하다. 카레이싱이나 광고동아리에 들겠다는 신입생들의 숫자는 놀랄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동아리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다. 본교 신입생 이유순(인문대1)양 역시 "단기 노래나 율동을 배우는 동아리는 싫다"며 "윈드서핑을 즐기거나 각테일을 만드는 동아리에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지금 대학은 학부제와 모집단위광역화의 영향으로 철저히 개인적인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새내기들은 학과가 아닌 동아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동아리 편식현상은 마지막 남은 대학문화의 희망을 꺾고 놓고 있다.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이다. 비록 과거의 저항 문화는 변형된 언더문화로 그 맹목만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지배문화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동아리뿐이다. 편종되지 않은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대학문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박유리(민예총 문화정책기획실 간사)씨는 "앞으로 대학 동아리들은 문화 생산의 주체성을 가지고 대학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한다.

어쩌면 대학문화는 사랑진단서를 받아 들고 시험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 동아리가 무거운 겹테기를 벗어버리고 문화적 주체로서 일어설 때 대학문화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잡은소식

리어왕

서울캠 연극학과는 2학년 정기공연으로 리어왕을 공연한다.

이번 리어왕은 본교 재직중 올해 서울예술대학교 학장으로 임용된 안민수 교수의 번안작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새로운 리어왕을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19일)부터 21일까지, 4시/7시. 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8753



아름다운 사인(死因)

서울캠 극예술연구회는 제18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장정의 '아름다운 사인'을 원작으로 하는 이번 연극은 여러 구의 시체에 담긴 사인(死因)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그린다.

오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22, 23일 7시, 24일 5시/7시. 학생회관 5층 극예술 연구회 소극장에서. 문의 2260-3789



현여울 연주회

서울캠 기타 동아리 현여울은 제21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중주와 합주로 나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외 8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6현의 기타가 만들어내는 화음에 젖어 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는 24일(토) 6시. 본관 3층 강강당에서. 문의 011-9837-7446(장소영)



문화박람회

경주캠 동아리 연합회는 '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동아리 홍보와 신입생모집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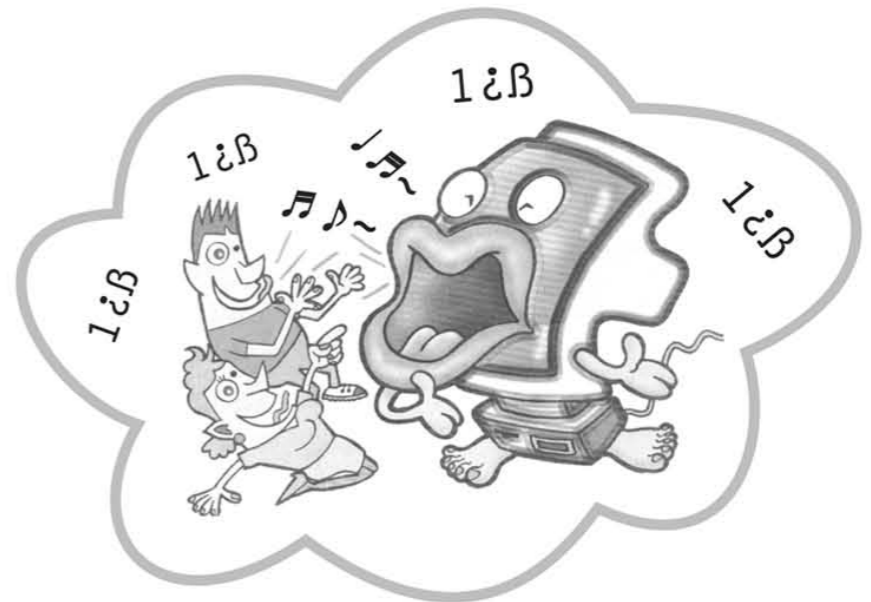
오늘(19일)부터 22일까지, 오후 4시. 백상탑 앞 가설공연장/원효관 중정에서. 문의 (054)770-2740

연	문예공연	영화·애니메이션	전시공연
19일	불휘, 소리창고, 유로프, 유로스, 솔레리아		
20일	동국음악회, 세븐글라스, 남녘땅 북녘하늘, 알샘	소나기(영화상영)	영상, 동북회
21일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울희, QUEST, 평범물질		고적연구회
22일	희망선무부, 신리택전회, 근저소리, 릴레	또다른 이야기 (애니메이션 상영)	또다른 이야기

문화기획



가요 순위 프로그램 풀코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체비평

김영삼

김영삼대통령 회고록

“성찰은 없고 권위주의, 자화자찬 넘쳐”



회고록을 통해 자기미화를 하고 있는 YS.

조선일보사에서 '김영삼대통령 회고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회고록을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따라서 회고록은 역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고, 후임자들이나 후학들이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훈서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현대 영화산업의 핵심을 배급이라고 한다.

미를 가진다. 때문에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중요 사건들의 세세한 전말뿐 아니라 그 결정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뇌와 갈등이 있었는지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YS 회고록의 상당 부분은 사건의 위안술에 묻힌 에피소드 중심의 기술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회고록을 통해 '회고록'이라는 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총리(이회창)를 불러 '총리로서 혼란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총재는 '잘못했으니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한시간 가까이 혼이 난 그는 내 집무실을 나가면서 출입문을 찾지 못해 허둥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IMF사태와 관련,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면서도 "IMF로 가야 할 정도

의 위기상황임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다'며 통치권자로서의 반성과 성찰보다는 '변명'을 앞세우기도 한다.

판지일보(www.ddanzi.com)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신(新)국어사전'에는 YS를 빛낸 '영삼'의 명사형을 두고 '말귀를 못 알아먹거나 지나친 공상에 빠져 있는 우매한 사람'이라 했다.

김시창 민주전문운동시인연합 기획부장

한국 영화계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할리우드 독과점에서 자국영화 보호·육성하는 스크린쿼터 수호해야

스크린쿼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영화산업이 파괴되자 상대적 안정성장을 이룬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스크린쿼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영화산업이 파괴되자 상대적 안정성장을 이룬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극장은 대박이 예고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으며, 블록버스터를 받기 위해 할리우드 직배사가 제시하는 배급 스케줄에 따라 B급, C급 영화를 '올며겨자먹기'로 상영해야 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현대 영화산업의 핵심을 배급이라고 한다. 배급에서 소외당하면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극장에 간판을 걸 수 없다.

문화 버팀목

그러나 할리우드의 위협이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된다. 인류는 산업화의 결과로 야기된 생물 종다양성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멸종된 종을 되살릴 수는 없다. 20세기가 출판 인쇄매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영상매체의 시대이다.

영상산업은 우후죽순으로 이어 21세기형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영상산업 각 매체간 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영상산업의 배급사슬이 영화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할리우드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스크린쿼터는 문화, 산업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버팀목인 것이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강요에서 자율로

현행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극장은 연간상영일수의 40%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되어 있다.

빛 좋은 개살구

영화산업 전면개방의 신호탄은 88년 할리우드 직배가 허용되고, 94년 프리트벨 수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부터였다.

정지영 감독 전화 인터뷰



정지영 영화감독

지난 5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영화계 대표 인사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 영화인들에게 스크린쿼터는 어떤 의미인가.

= 영화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려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영화는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가 사라져 가는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환경운동을 하듯이 스크린쿼터도 우리 문화가 가진 고유성을 지키고 다른 문화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영화계는 미국 할리우드판이 돼 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영화뿐 아니라 문화 전체가 위협될 위험성을 가진다.

- 미국이 디지털 영화의 보급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의 영화를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제에 동조하고 있다.

디지털 영화 보급에 대한 주장 역시 그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영화의 보급으로 공간적 한계가 극복돼 스크린쿼터제의 존재가 유명무실해 진다면 굳이 폐지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최근 우리 영화가 시장 경쟁력이 높아져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몇 년 새 우리 영화의 흥행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한국영화가 국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영화가 시장을 넓히긴 했지만 할리우드 영화에 비할 바는 아니다.

- 스크린쿼터제를 수호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 스크린쿼터제 수호 운동은 우리 문화 수호를 위한 운동이다.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가장 필요하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인이 되어야지, 국적 불명의 '세계인'은 무의미하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c9292@dongguk.edu

스크린쿼터 해외사례

최근 각 나라들이 '자국영화 지키기'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스크린쿼터제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국에 달한다. 자국에서 영화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수는 그리 적은 편이 아니다.

일례로 프랑스는 수요일, 토요일 밤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방영할 수 없는 법을 제정했으며 영화산업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 강력한 문화 보호국 중 하나인 캐나다는 '텔레필름 캐나다'라는 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투자와 보조를 하며 문화에 대한 투자를 입법화 시켰다.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의 잠식을 막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일본 내 총 영화관의 30%가량을 일본영화 전용 상영관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인도, 중국, 이집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수입영화편수를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스크린쿼터 수호

메아리

행님의 두 얼굴

▲“행님, 제가 말입니다. 행님. 옆 집 아그들하고 잘 지내בל려고 하는데요 행님. 어땡습니까요, 행님.”

만인 적용된다. ▲세계적인 행님으로 불리는 미국이 요새들어 한반도에 넘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자국의 무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다.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한미 연합사령관은 물론 파월 국무부 장관 모두 433천여원이라는 무기도입 사상 두번째로 많은 예산이 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할 정도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냉전 구조 청산을 방해함으로써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무기 구매와 부시대통령의 열망인 NMD구축 협조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지는 속셈이 배어있는 듯 하다.

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한 주 먹하십니다. 군사·정치적으로 약한 남한에 자기 물건 사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자신은 지키지도 않는 협약을 북한에 틀어박고 으름장을 놓는다.

김현중 대학부장 ditzzy20@dongguk.edu

소나기

부시>DJ(?)



△무능력한 가장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부시, 콜라병 들고 부시맨한테 가서 약한자에게 배후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떨지?
 △부시부시한 부시맨한테 밀리면 쪽팔려~ △현실~대처!
 △안타깝다. 우리는 진정 미국의 속국인가!
 △부시는 왜 그러지?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산다.
 △DJ 승리의 그날까지 싸우자.
 △대중이행!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지 말았잖아.
 △부시의 정책 의심해야...
 △왜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까?
 △유일하게 맘에 드는 김대중의 한 부분. 부시의 작은 논리에도 햇볕이 통하길...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부시>DJ(?)>NO~ 부시<DJ(!)>YES.
 △그럼 대통령 자리가 그리 쉬울 줄 알았나?
 △미국 땅>한국 땅
 △뒤 달라고 뭐! 어찌라고 어!
 △부시의 대북정책보다 대남정책은 더 궁금하다.
 △나야(?)>부시<DJ △미국>한국<북한
 △DJ여, 부시의 논리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돼!!
 △DJ는 햇볕정책, 부시는 힘에 의한 대북정책(?). DJ가 더 우월한 거 아닌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은 확실한 준비를 해 가야 했다.
 △결국 정상회담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것인가?
 △부시>김정일>DJ(?)
 △DJ는 부시에게 확실한 논리로써 맞대응을 해야 했다.
 △언제쯤이면 미국 없이 우리만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부시는 남 잘되는 거 배아파하는 사람인가?
 △7:30이 아닌 5:50로 만들어 나가자!
 △친선과 우호 속에 가려진 그들의 검은 그림자.
 △미국 > 한국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니우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제육두부찌개(1300)
화	참치비빔밥(1500) 비엔나볶음밥(1500)
수	햄숙이찌개(1500)
목	불고기덮밥(1500) 순대볶음(1300)
금	장터국밥(1300)
	오징어볶음(1500) 쇠고기볶음(1500)
	육개장(1500)
	돈까스(1500) 소고기명양탕(1500)
	짬뽕국밥(1500)
	후라이드치킨(1500) 제육김치볶음(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김치국밥(1500) 함박(3000)
화	불고기비빔밥(1500) 치킨까스(2500)
수	갈비탕(1500) 돈까스(2500)
목	비빔만두(1300) 함박(3000)
금	쇠고기버섯찌개(1500) 치킨까스(2500)
	탕수육덮밥(1500) 함박(3000)
	돈육김치볶음(1300) 생선까스(2500)
	떡볶이+피자(1500) 정식(3000)
	부대찌개(1500) 함박(3000)
	치킨샐러드(1500) 돈까스(2500)

(단위:원)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들 의견없어 아쉬워 객관적 시각 필요할 듯

사립대학의 학생으로서 6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기사들이 참 인상적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지적들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부패의 정도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다 빨리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여러 노력과 운동이 일고 있다는 반가운 기사였다.
 그리고 임관규 변호사의 매서운 지적과 김태정 회장 기사의 대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짊어질 우리들의 배움터 개선을 위한 일인만큼 주역인 학생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기사가 빠져 있어서 아쉽다.
 김혜령 (이과대 화학3)

기획연에 실린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기사는 기획의도는 돋보였으나 아쉬움이 남는 글이었다.
 '사립학교법 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찬반논쟁의 의견 제시까지는 매우 객관적 입장에서 중립적 방식을 사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6면 첫 기사에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해결의 신호탄·교육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이미 기자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다. 서두의 질문은 물론 찬반논쟁도 무색하게 되어버린 일관성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도 결국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차라리 사립학교법 때문에 생겨나는 비리나 부작용을 열심히 폭로하는 쪽에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은지 (인문대 국문3)

남산언덕이 내집 정원처럼 여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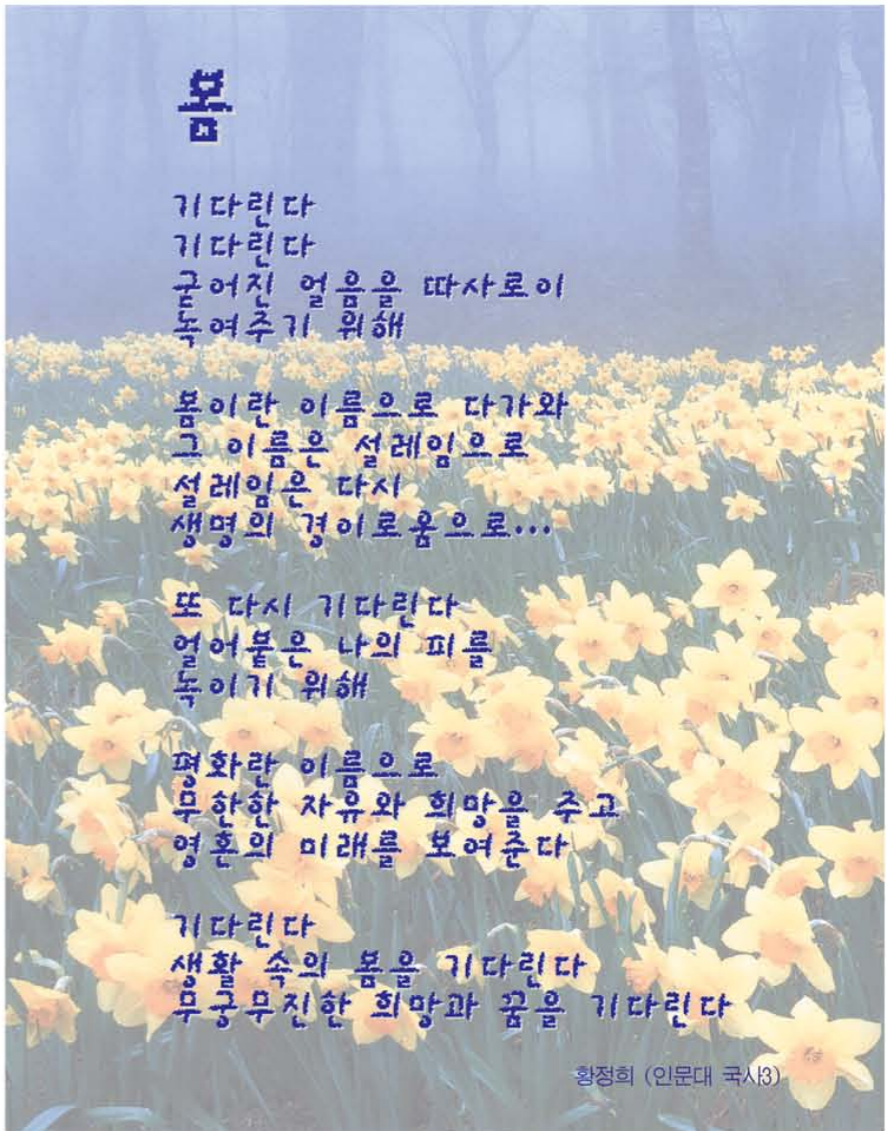
'학교의 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무슨 학교가 이렇게 산에 자리잡았어' 독자 중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래의 경험을 읽어보고 이렇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졌으면 한다.
 본교에 합격하고 입학에 기다리던 중 우리학교 출신인 큰 이모는 "남산이 우리학교 정원 아니냐? 술도 먹고 산책도 하고 좋잖아"라는 말을 했고 나는 이 말에 마음이 부풀었다. 동대는 멋진 학교라고, 그런데 입학후 일주일이 지나고 그때 그 마음은 사라져 버렸다. 수업을 듣기 위해 문화관에서 학림관까지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하는 상황이 학교의 터를 원망하게 만들었다. 힘들다. 힘들다. 수업듣기 힘들다. 이렇게 일년이 지나고 새내기들을 맞이한 후 보름을 보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깨달았다. 두 달만에 오르는, 그렇게 넘을 수 없던 고개를 힘들이지 않고 웃으며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응원가의 한 구절처럼 내 다리는 풍상에 가다듬어져 있었고 학교의 터를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다. 큰 이모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고 나는 이제 남산이 우리학교 '정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기분 좋은 변화이다.
 김동국 (불교대 불교학부2)

대학가 술 문화, 지성인으로서 반성해야

개강을 맞아 학과와 소속 동아리의 개강 총회가 찾아 성간동에 자주 나가기 된다. 하지만 최근 성간동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주태'라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는 기행들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서로 싸움을 하다 결국 파출소에까지 불러 가는 사람 등 보기에 민망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이 바로 동국대 학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반쯤 술에 취인 그들의 대화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대학생으로서의 지성을 내세우곤 한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지성적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들,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김미선 (상경대 경성2)

도서관 소음 해결 시급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어울림으로 교정의 3월은 생명력이 넘쳐난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도서관 학생들은 귀를 틀어막고 지내게 된다. 공간부족 탓인지 대부분의 행사가 도서관 앞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 차례 도서관 이중창문 설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이나 학생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드려 사정을 하고 싶다.
 우선 학교당국에 이중창문 설치를 거듭 바라는 바이다.
 진정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이중창문 설치를 해 주어야 한다.
 학생회와 풍물패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바란다.
 협소한 공간 사정으로 팔경도와 만해광장에서 행사와 연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들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면 도서관을 드나드는 수많은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이해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도서관 환경에 대해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
 김상현 (사범대 국교3)



희망찬 대학생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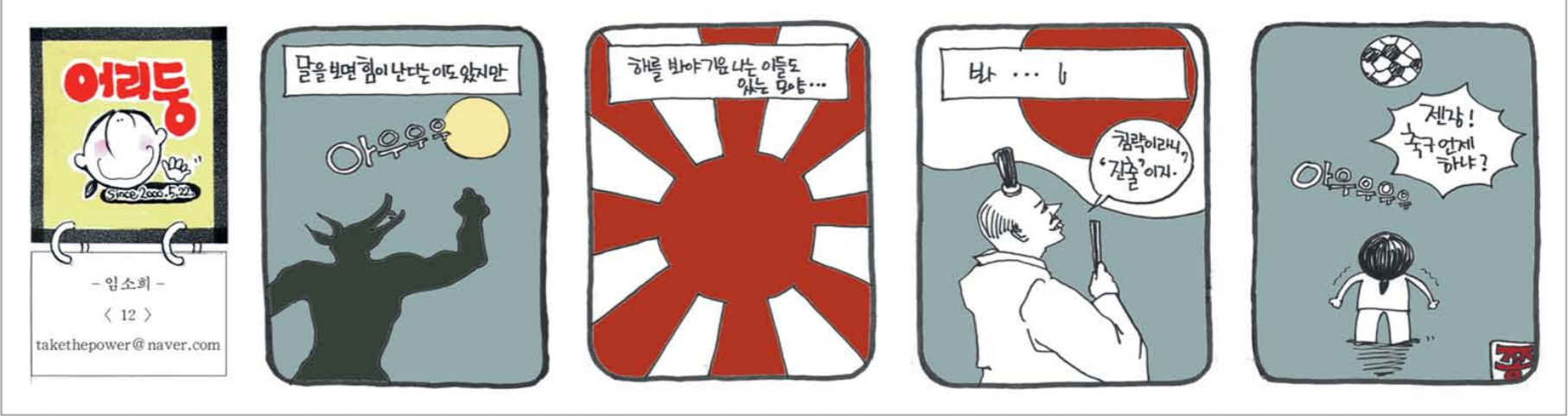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입학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처음 수강신청 할 때만 해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과연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해낼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몰라 걱정이 됐다.
 하지만 지난 새터에서 친절한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 지금은 학교 생활이 한껏 즐겁다. 새터에서는 동기들과 친해지고 술자리에서는 동기들과 선배들 모두 친해질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또한 경영대 풍물패인 '한파카리'에 가입해 평소 관심있었던 풍물놀이를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즐거운 대학생활이 기대된다. 다른 새내기들도 자유롭게 활기찬 대학에서 마음껏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과 공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다.
 황두하 (경영대1)

동국DC카드 이용,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

할인혜택으로 학생들 생활에 도움돼

e-비즈니스의 발달과 신용사회화 덕분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등 다양한 카드들을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본교 경주캠 내에서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들어쓰는 동국DC카드가 있다.
 이 카드의 매력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체를 선별 선정하여 가격할인혜택을 중심으로 제작, 학생들에게 배포하게 된다.
 이 카드의 유익한 면을 보면, 한 업체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업체의 가격 하락을 유도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며 업체에서는 매출신장에 따른 이윤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단순히 보면 가격에만 집

중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가격을 인하한다면 다른 업소에서든 상대적으로 동반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물가에 영향을 줘 학교 일대 상권의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와 물가의 많은 요인들이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현재 많은 업체들이 단합과 협회 구성을 통해 상호간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학교 주변은 일년 중 6개월 장사밖에 못한다는 편협한 인식을 가진 업자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동국인이 비록 적은 액수의 할인이더라도 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게 되며 각 개인의 생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점점 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류진열 (관광대 관경4)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21세기형 신개념 미남 율환이 형, 제대 축하드려요. -21세기형 신개념 미녀 △새터 5조 선영과 성기 couple탄생을 축하해요. ps) 예열이 형도 축하해요. -eric △일진과 규상오! 정말 축하해요. -송볼 △SUN과 고. 벌써 1년이네. 앞으로는 풀이 항상 행복하길. -SONG △혜선이야 생일축하해~ -명혜 △이마로심(심혜선) 생일 축하할께. -세무회계 99동기 △세무회계 말라겐이 생일축하!! -99영선 △14일 국고 은지 생일, 16일 국고 민경 생일 축하해여~ △15일 법학과 최은자! 생일 축하해~ -세원 △병우야~ 전역 축하한다. -미초 △애벌레 진영, 지났지만 16일 생일 축하

해. -기용기용 △윤리문화95 이기원 생일 축하&무지 사랑해! △세무회계99 심양!! 생일 축하하는거 알지?? -영선

열심히 합시다
 △최강 광고종족 AD. RUSH 12기 맞아 열심히 합시다. -우지니 △33대 으뜸 문과대 3월달 총집중 공부 합시다!
 △민족 국문 최강 97 쓰레기들, 제대 축하하고 열심히 살자! -97미소년 △이과대 라·면·팡 공연 준비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심민 △정, 쥘, 만 공부 열심히합시다... -모두 합력!!!

그리고...
 △문과대 여학우 여러분 만화열무 오세요! △대훈♡소연 HAPPY하게 살아랏! △도식♡혜련 행복하세요! -의문의 Y가

은방글

축하합니다
 △3월 13일 박민규와 조희라의 200일을 축하!! -95 family △3월 14일 이쁜 수진아, 우리 4학년이야! 벌써~ 열심히 하지구나. 글구 얹기 하렘과 구여는 은주도~ -씩씩 영일! △3월 14일 성훈아! 축하축하해. ps)밥 많이 사주셔~ -T.G. Girls △3월 18일 국사학과 동이와 가정교육과 미나의 300일입니다. 헤미야 사랑해~ △3월 19일은 호준이와 상미의 200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여~ △정희♡진수, 300일 지난 거 축하하구요. 행복하셔요~ -bbang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 '짱' 이름 없는 동호회 회

열심히합시다

장노릇 힘들지? 정구 동아리가 되는 그 날까지 고생하자! -코스프레 민민세!!! △성희야~ 매일 통학하느라 고생 많지? 방 구할 때까지 참아. -에비방짝

그리고...
 △허허... 추씨 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공무원 시험 준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원지야! 대학생활 재미있니? 요거 보거든 말 안나한테 연락 좀 해라!!! -카이가 △은주야, 시험친다고 고생 많이 했다. 꼭 합격길 빌게. -이뿌니 친구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콩나물국(1300) 미피두부덮밥(1800)
화	팔보채덮밥(1800) 해물볶음밥(1800)
수	얼갈이국(1300) 돈까스(1500)
목	불고기덮밥(1700) 아채건강비빔밥(1300)
금	근대국(1300) 미트볼덮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김치비빔밥(1500)
목	시금치국(1300) 케라라이스(1500)
	생선까스(1800) 불닭볶음(2000)
금	미역국(1300) 리면덮밥(1500)
	햄이채볶음밥(1600) 탕수덮밥(1800)
토	복어채국(1300)
	참치아채덮밥(1500) 정더국밥(1300)
일	아육국(1300)
	제육오징어덮밥(1600) 정더국밥(1300)

(단위:원)

‘동국비전21’ 최종 확정

21세기 미래상 제시 ...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제

본교 장·단기 발전계획안인 동국비전21이 지난달 23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동국비전 21’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1년여 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된 이 계획안은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통한 세계인의 대학 △국내 상위 5위권 대학을 오는 2010년까지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게 교육부와 연구부, 행정·재정부에서의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는 데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본교는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전공 선택결과 등을 반영해 선택된 학문만을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계

획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중심교육을 지향하며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부=2005년까지 4개 분야를 중점 육성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대학·산업체 간 세미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허출원 등의 한 분야의 지적재산 확보가 타 분야의 발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재정부=기관적평가와 같은 업적평가제도의 정착과 책임중심 예산제도를 통해 각 부서의 성과에 따라 예산을 분배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관리 감독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 고차 지향 경영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21세기 본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제시를 과제로 남겼다. 일례로 교육부에서는 특성화 분야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성화의 구체적인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난 96년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캠퍼스 건설이 이번 계획안에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동국비전21’은 말 그대로 본교의 발전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 계획안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추진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일산병원 상량식 ...

본교 의과대학·한외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의 상량식이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석사동 건립부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과 원로 스님들을 비롯한 2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총 3만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한방·양방 1000병상으로 강북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불교종합병원은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0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량식장에서는 현금으로 기부된 약 2억1천3백6십만원의 포함하여, 본교 오복원 이사장과 불교계 인사 등 250여명이 총 3억4천4백7십만원의 건립기금을 약정하였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지면안내

☞ 우리의 전통먹거리, 김치	7면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논란	3면
☞ 출판업계 주도권 분쟁	6면

보리수

바미얀 불상 파괴

전 해 주 (불교대 불교학부)

요즘을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이 탈레반이라는 집단이 바미얀 불상과 주변의 유적지를 무참히 파괴하여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불상은 우상이며 이슬람교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훼손행위를 선포하고 자행한 것이다. 이슬람교는 과거에도 인도에 침입하여 불교가 인도에서 거의 사라지게 치명타를 가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미얀 불상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북서쪽으로 12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바미얀 계곡에 있는 높이 50여m 되는 거대한 불상이다. 5세기경에 조성된 간다라 양식의 불상로서, 오래 전 현장스님과 신라의 혜초스님도 이곳을 참배하였다고 한다. 인류문화유산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와 세계 각국에서도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한 비난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회엄경에서는 “색신이 부처 아니며 음성도한 그러하나, 색신(色身)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력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늘의 달 하나가 천 강의 달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법신이 색신을 통해서 인연따라 중생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저들은 단지 그 점을 깨닫지 못하여 중생의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불교인들은 그러한 법신의 현현된 모습을 불상으로 모셔서 예배하며 부처님처럼 되기를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바미얀 석불 파괴로 인해,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한 이교도의 훼손행위가 혹시 더욱 가열되는 양을 염려된다. 훼손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남은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지지의 뜻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모았으면 한다.

다무라 교수 본교 방문 불교학 석좌교수 임명

일본 큐슈대학 다무라 엔조(田村 園澄) 명예교수가 오는 11일부터 4일동안 본교를 방문한다.

다무라 교수는 오는 12일 총장실에서 본교 불교학과 석좌교수 임명장과 감사패를 받은 후, 13일 경주캠프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무라 교수는 지난해 3월 본교 중앙도서관에 1만 3천여권의 불교학 도서를 기증했으며, 기증 도서는 현재 다무라 문고로 운영되고 있다.



3.30 총결기 ...

‘등록금 인상 저지, 국가교육재정 확충,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위한 3.30 전국 대학생 총결기’가 지난달 30일 중요공원에서 열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축구부 전국대회 3위 1점차로 결승 탈락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제49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축구부는 예선에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 건국대, 국민은행, 서울시청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올랐으나 울산대에 0:1로 저 결승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한편,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오는 7일부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다. 경희대, 고려대 등 6개팀과 같은 조에 편성된 본교는 춘천야구장에서 경성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오는 9일 도서관 기공식 한달 후 본격적인 공사예정

2002년 8월 완공 예정인 도서관 기공식이 오는 9일 오전 11시 학관단 앞 공터에서 진행된다. 기공식은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철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도서관 설계 설명 △시삽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기공식 이후 강의동 주변의 나무 옮기는 작업을 시작으로 강의동과 테니스장을 철거하며 약 한달 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흥빌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학관단은 원흥빌관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철거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본교 불교학 연구업적 저조하다?” 종관위 주최 세미나서 팽팽한 대립 보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조계종 총회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답)의 주최로 지난달 20일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중명 박사는 “최근 10년간 교수들의 출판 저서와 논문을 살펴보면 국내의 교수들의 업적에 비해 양적으로 적고,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술적 우수성의 척도가 되는 전문 학술서 발간이 지난 4년간 한권도 출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호성(인도철학) 교수는 “2000학년도 연구업적의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잘못 평가하였다”며 근거 자료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 의한 질적평가는 상대적인 타당성을 가질 뿐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국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동국대 불교학부는 문헌학이나 어학등 기초학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타대학 출신의 교수가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다”며 불

본 사 사 평

◇ 임수습기자

- ▲ 박우정 (문과대 1)
- ▲ 조소길 (문과대 1)
- ▲ 김진성 (사회과대 1)
- ▲ 송윤경 (사회과대 1)
- ▲ 이재철 (사회과대 1)
- ▲ 함민호 (인문과대 1)
- ▲ 이지현 (인문과대 1)
- ▲ 조임경 (인문과대 1)
- ▲ 신정환 (자연과대 1)

-이상 4월 2일자

관광대, 산학협력 협정 체결 현장실습교육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 기대

경주권 관광대학(학장=서태양·관광경영학)은 지난 1일 미국 기업인 유니 월드 관광여행사, 국내 기업인 나스 항공여행사와 산학 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관광대학 활성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이번 기업체 ‘대아 기획’과 산학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일반 여행사와는 처음으로 맺어진 것이다. 협약의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인력의 공동개발 △국내·외 관광산업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러한 산학협력으로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저렴한 해외여행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익금의 일부는 본교 학생들의 호텔

동대신문 기획광고

여러분이 바로 ‘기자’입니다

발행기금 ARS 7000-119

소나기
매주 화제로 떠오른 한가지 주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날카롭고 재치있는 20자 내외의 글을 기다립니다.

동약광장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기 쉼없는 속내를 동약광장에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글터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독자 여러분의 작품(시, 수필, 만화, 사진 등)을 신문에서 소개합니다.

독자광고
동아리 소개, 아르바이트 구인, 동문회·향우회 모임, 분실물 공고 등 독자 여러분의 광고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으로 그 주의 동대신문을 읽어보실 수 있으며, '독자투고'와 '자유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대신문사

중도신청도서 예산 증가 학생희망도서 5% 늘어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의 2001학년도 교수추천도서와 학생희망도서 구입 예산이 각각 5%, 15%씩 증가해 교수와 학생들의 신청 도서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도서관은 35%였던 도서관 선정도서구입 예산을 20%로 낮추고 학생희망도서와 교수추천도서 예산을 각각 20%, 60%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8천 200여 만원이었던 학생희망도서 예산이 약 1억 2천여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교수들은 1인당 약 100만원의 도서구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등원 개장해 불교대·불교학생회에서

불교대 학생회(회장=김대수·불교4)는 오늘(2일)부터 21일까지 불교대 학생회실에서 연등원을 개장한다.

제작된 연등은 문화관 3층에 전시되며, 다음달 1일 연등 축제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불교대 학생회는 오는 23일부터 7일동안 중앙도서관 앞에서 연등만들기 시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학생회(회장=조흥근·전기공)는 지난달 24일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실에서 연등원 개장식을 가졌다. 한지, 철사 등을 이용해 연등을 만드는 이번 행사는 교수, 직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생증인증시스템 재가동 오늘부터 학생증 지참해야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늘(2일)부터 학생증인증시스템을 재가동한다.

이에 따라 각 컴퓨터 공용 실습실과 캠퍼스 샵 등에서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관리실은 그동안 신입생들의 학생증 발급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증인증시스템 가동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실장은 "앞으로 신입생들에게 학생증을 미리 교부해 인증 절차를 학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차 생협준비위 개최 출자금 5000원으로 결정

제 2차 생협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상록원 3층

에서 열렸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을 전자계산원을 제외한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인정 △출자금을 작년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출자 구좌수를 20%로 제한 △산전 의견조율을 위해 각 구성원 대표 4명의 정기적인 모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총학·공대 새터 재감사 무기한 예산정지 취소

2001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부정기 감사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한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공과대 학생회(회장=황정임·전자4)의 재감사 결과, 각각 예산정지 6주와 4주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총대의원회(의장=유승우·아시아지역4)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재감사에서 총학생회는 감사자료미비와 금전출납부 오기로 예산정지 6주 징계조치를 받았고, 공과대 학생회는 감사자료미비로 예산정지 4주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다.

새내기 기획영화제 실시 매달 주제선정 상영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 이하 학복위)는 매달 한번씩 주제를 선정해 영화를 상영하는 새내기 기획 영화제를 실시한다.

죽마고우 영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새내기 기획 영화제는 신입생들에게 영화 감상문을 접수받아 우수작을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태광 학복위 위원장은 "재미 위주보다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해 신입생들이 주제를 생각하며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동연, 새내기 교양학교 오늘부터 연화원에서

동아리연합회(비대위원장=이동우·전기4)는 2001 봉사분과 새내기 교양학교를 오늘(2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진행한다.

봉사에 관심있는 새내기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2일=손짓사랑회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제 △3일=길이 두 번의 봉사활동을 통한 우리의 생각 △4일=RCY가 현실과 백혈병 이야기 △6일=젊은새이웃이 새내기 예비교사 되기를 주제로 동아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자요구안에 대한 답변 전달

총학, 납부연기 운동 마무리 ... 농성 계속하기로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가 지난달 14일 학원자주화투쟁선포식 때 학교측에 제출한 학자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21일 열린 등록금 2차 협의가 끝난 후 전달됐다. 요구인과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금 인상을 재조정과 재단 전입금 확충=올해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최저 5%인 상한 것임. 따라서 등록금 인상을 재조정은 어려움. 재단 전입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재단도 종단과 협조를 통해 수익사업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겠음.

△가결산 공개 통한 등록금의 합리적 산출근거 제시와 학기중 등록금 책정 정기 논의=2000년 결산은 법인 감사가 끝나는 5월에 공개할 것임. 학기중 논의는 학생회에서 요청하는 시점으로 결정할 것임.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 재검토 위원회' 설치=현재 교육개혁 추진단에서 학사제도 개선을 연구 중인.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음.

△제2도서관 '도서관 자치위원회'·'공간 소위원회' 구성=지난해부터 좌석관리 등을 위한 관리학생을 배치해 운영중임. 공간배치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것임.

이에 대해 임은희(수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변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등 성의 없는 대답이 대부분"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21일 기획산전장실에서 열린 등록금 2차 협의의 1차협의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측과 총학생회의 입장표명으로 끝났는데, 김덕기 부총학생회장의 "등록금 인상을 재조정과 2000년도 가결산 공개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용길 기획산전처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학교측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30일 불상 앞에서 3·30 공동연대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각 단과대 대표들은 총장실을 방문해 단과대 학자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30일 총학생회는 등록금 현물납부를 실시했다.

참가단은 재무회계팀을 방면해 지난 14일 열린 학원자주화투쟁선포식때부터 각 학생회별로 모은 쌀 11가마를 김덕기 부총학생회장의 등록금으로 납부했지만 "상식적으로 통화가치가 없는 쌀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총학생회는 납부연기 운동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마감일인 7일자

지 납부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오늘(2일)부터 총학생회는 해오름식이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김홍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각 단과대 학생회별로 오는 6일까지 본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실시

인증서 소지해야 정품 인정

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본교를 포함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다.

MS 윈도우 95와 98, 한글 97 등 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한편,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대비해 각 행정부서와 컴퓨터실습실에 정품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실장은 "정품을 사용하더라도 인증서가 없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인증서를 CD와 함께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회 보궐선거 소식

법과대
손민환(법4)후보가 투표인원 280명중 찬성 254(90.7%)표로 당선.

예술대
차중철(영화3)후보가 투표인원 384명중 찬성 334명(86.9%)로 당선.

단과대 해오름식

불교대
4일 두리터에서.

문과대
6일 오후 6시부터 명진관 앞에서.

사범대
4일 오후 4시부터 본관 중앙강당에서 새내기 연극전차와 함께.

사회과학대
'새내기 체육대회'를 4일 오후 4시부터 만해광장에서.

"RE :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활용 ... 교육효과 높여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질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제한된 강의시간에 수업명이 넘는 인원을 속에서 교수와 학생이 개인적으로 소통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2학기부터 전임 교수들이 수업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수 홈페이지에는 학생과 교수가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게시판과 교수들이 강의자료를 올릴 수 있는 자료실 등이 갖춰진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업진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질문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답변해 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정치외교학 전공 이태희 학생은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다른 학생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며 "수업에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방식도 학생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박찬용 교수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임할수록 교육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교수 홈페이지는 그 동안 수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과제를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받음으로써 학생들의 보다 진지한 과제를 작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찬용(사회학) 교수의 홈페이지(sociology.dongguk.ac.kr/park)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찬용 교수는 게시판을 통해 수업 진도, 강의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한 강의와 관련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회전문대

2IC 장자

O...상록원을 이용할 때에는 세가지 도(道)가 필요하다는데.

첫째, 음식이 맛이 없고 메뉴가 적어도 불평하지 않으니 이를 인(仁)이라 한다.

둘째, 아주머니의 불친절에도 공손히 음식을 받으니 이를 예(禮)라 한다.

셋째, 더러운 식판과 식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 이를 용(勇)이라 한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21세기 장자들, 도(道)를 갈고 닦아 무엇을 얻으리오!"

누구 맘대로

O...생협출자금을 돌려 받으려 온 학생들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데.

알아보니 졸업식에서 받아가지 않은 생협 출자금을 환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조교들이 일괄적으로 서명하고 교비로 써버렸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돈이 되어버린 출자금을 보며 학생들 허탈해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생협 출자금, 조교손만 거치면 학과 출자금 된다?"

'시청은 각각' 수업

O...시청각 수업시간만 되면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데.

시청각 수업을 진행하려면 비디오가 설치돼 있는 강의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의실을 옮기더라도 켜지지 않는 텔레비전 때문에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린다고.

등록금은 5% 올랐지만 교육환경은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본 회전문대자 왈, "시청각 수업, 시청자는 많은데 시청률은 0%"

상담 미야

O...지난해 전공결정을 한 2학년 학생들이 담당교수와의 상담을 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인기과목과 몰린 학생수에 비해 전공교수는 턱없이 모자라 학생들이 교수와의 상담을 하고 싶어도 담당교수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전공배정인원이 고수출처럼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수인원은 변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한쪽만 늘어남이면 다른 한쪽은 줄어든다네"

e 비즈니스 인력양성 과정 수료생 황운정 등문을 만나

"교육 덕 많이 봤어요"

전자상거래 교육 모범사례 선정 ... 청와대 초청 발표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에서 실시하는 e-비즈니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황운정(역교 99졸·클릭클럽 코리아 기획팀장)씨가 지난달 26일 정부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교육 모범사례로 뽑혔다. 황운정 씨를 만나 소감을 들어 보았다.



황운정 (역교 99졸·클릭클럽코리아 기획팀장)

- 모범사례로 뽑힌 소감은
= 청와대 정보화교육 수혜자 초청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디지털 신문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선보였다. 초청자 대표로 시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게 된 계기는.
= 학교 다닐 때 매일경제신문과 EBS에서 인터넷 웹PD와 소프트웨어 테크노 2000이라는 인터넷 방송의 MC를 한적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분야의 일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때마침 여학생실에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 인터넷 벤처기업인 클릭클럽 코리아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으며, 매주마다 전자신문에 사이버 테마 여행기라는 칼럼도 연재한다. 앞으로 전공을

살려서 전국 학교를 온라인 상에서 묶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있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교육과정이 길지 않았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후배들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손상민 기자
nec9292@dongguk.edu

취미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단기강좌

여학생실에서는 정서함양과 교양습득, 그리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중에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기간 및 강좌명 : 2001년 4월 9일 ~ 5월 11일, 매회 2시간씩(5회)

강좌명	강사	내용	요일/시간	비고
전문 Monitor 과정(미디어 바로보기)	전상금 (미디어영상 열린사람들 대표)	1. 방송모니터란 2. 드라마 속의 삶 3. 뉴스 바로 읽기 4. 온라인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5. 미디어 교육론	매주 화요일 2:00~4:00	
댄스댄스 (살사댄스)	손제현 (체육교육과교수)	1. 기본스텝인습 2. 실기 3. 반박	매주 금요일 2:00~4:00	편한복장 권장 선착순 40명
이미지메이킹	신단주 (신단주 메이크업 아카데미 원장)	1. 얼굴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2. 화장이 가는 화장법 3. 눈썹, 볼, 입술화장 4. 셀프로 헤어테크닉 5. 토털 이미지 메이킹	매주 목요일 2:00~4:00	
국제회의 전문기	신수근 (월간여행정보발행인 호텔관광학과과정교수)	1. 국제회의대행사의 정의 2. 국제회의 기획사가 되는 길 3. 국제회의의 기준 및 종류 4. 국제회의 실무진행 맛보기 5. 프로그래밍 기획 및 진행 요약	매주 월요일 3:00~5:00	
손뜨개	김정란 (손뜨개전문교육기관 김정란연구소 소장)	1. 가방만들기 2. 모자만들기 3. 손뜨개 전문철 착용 원형	매주 금요일 2:00~4:00	면사, 코바늘 제공비 별도

2) 접수 및 장소 : 2001년 3월 26일 ~ 4월 6일 (선착순 마감, 단 정원 이하는 폐강), 계산관 (사범대 옆건물)

3) 수강료 : 5,000원

* 기타 문의는 여학생실(2260-3056, 계산관 1층)로 하시면 됩니다.

여 학생 실

신체검사 추가 실시

보건소에서는 200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동참 바랍니다.

(입학전 2월 23일 ~ 2월 28일 기간에 신체검사를 마친 학생은 제외합니다)

- 추가신체검사 기간 : 2001년 4월 3일 ~ 4월 4일
- 추가신체검사 시간 : 오후 1시 ~ 5시
- 추가신체검사 장소 : 동국대학교 본관 2층 보건소
- 문 의 처 : TEL 2260 - 3466

* 신체검사비용은 여러분이 입학하실 때 내는 등록금에 포함되었으며, 검사후 결과 이상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건강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보 건 소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과 문제점

대학 서열화로 학벌공화국 심화시켜

올해들어 일부 사립대학 요구로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데 공헌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학금 혜택을 넓힐 수 있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실정 무시한 주장

그 동안 일부 사립대학들이 무리한 시설 투자와 더불어 국립대학보다 높은 수준의 교직원 보수를 책정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재정 조달 구조상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며 재단이 영세하기 때문에 전입금 확대도 어렵다. 이러한 사립대학 처지가 볼 때 기여입학제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여입학제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로 학력과 학벌이 곧 사회 계층의 배분 준거로 작용하고 있어 대입경쟁이 극심하다. 1점 차이로 수석, 혹은 수백명의 당락을 결정짓는 대입 풍토에서 기여입학제는 특수 계층의 학벌 상속이라는 부작용과 불공정, 나아가 계층간 위화감만 유발시킬 것이다. 외국어의 경우 기여입학제와 유사한 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특수한 대입제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나타난 것이다.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기여입학제는 결국 개인의 경제력이나 지위 능력으로 대학입학을 구매하는 행위가 때문에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실력을 기어 사회 참여보다는 경제능력이 최고라는 불건전한 가치관을 고착시키게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일도 우려된다. 대학 입학 허가증을 기여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풍토가 확산되어 전체 대학의 이미지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다. 소위 일류 대학들은 기부자들이 몰려 활발한 기부금 유치가 가능하나, 그밖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부자들이 적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학들은 값싼 대학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당사자의 인격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기여입학자는 정당한 실력을 기반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겪게 되어 건전한 인격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장학금 지급은 허울좋은 명분

정원 외로 기여입학자를 입학시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자를 정원 외로 입학시킨다면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제도는 당초 취지가 어긋날 수 밖에 없다. 기여입학제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부실 사학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학 비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홍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소위 있는 자들이 기여한 돈을 받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나, 빈곤한 대학 형편상 사학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의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미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조건 없는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특혜를 베풀어도 사회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국민전체에 자리잡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벌이 더 이상 사회 계층 배분의 준거로 작용하지 않고, 치열한 대입 경쟁이 협력기 완화될 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에도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독자적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가 건전하게 발휘되어,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입학시키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설

종단과 학교, 책임있는 노력 함께 해야

일산불교종합병원 상량식이 열린 지난 20일 종교관계도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는 조계종 총회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주최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본교 불교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점검하고 불교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종단에서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한 재야 학자는 본교 불교학부 교수의 연구업적이 국내외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단은 지난해 '동국학원 위상과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동국학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근 동국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종단측의 말처럼 분명 지적과 비판은 한 집단이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 개최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본교 불교학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세미나가 어떠한 계기와 취지로 이뤄졌든지 간에 학교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교학이 한층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늘리는 한편 불교대학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단 역시 토론자로 참여한 연세대 신구택 교수의 지적처럼 불교적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종립학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종단의 정치·행정적 지원이외에도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은 불교학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종단이나 재단, 학교가 하나가 되어 책임 있는 노력을 같이 할 때 동국대 불교학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불교의 발전방향도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불신 깊어져가는 경주캠 학생회

지난달 27일 경주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및 자치기구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수협문제와 등록금 협의에 관한 공개좌담회는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수협문제는 불투명한 수협제작과정과 수협 내에 상업광고가 실렸던 것이 문제가 돼 거론되었던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수협 내에 있는 상업광고가 반 이상 남아있는 점과 수협제작 과정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확실한 언급이 없어 총학생회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등록금 협의에 대해 대개특 손석우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 등록금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며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깊이 사죄했다. 물론 등록금 협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금 협의의 시발점인 1월에는 무엇을 했기에 이제부터 최선을 다한다며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껏 학생들의 신뢰를 잃어오던 학생회에서 등록금 최종 납부일까지 얼마만큼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음날 있었던 중앙운영위원회가 단 3명만의 참여로 무산돼 이러한 의문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좌담회 자리에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최선을 외치던 위원들의 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좌담회 자리에서 대개특 위원장에게 책임감을 운운하며 비판하던 그들의 모습은 중문위 자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것이 아직 시작단계인 지금 학생회와 학생회간, 학생회와 학생간 점점 깊어지는 불신의 골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란

농민생계보다 무역자유화가 우선인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곧 우리 농업의 몰락이다"

지난 달 5일 주요 일간지에 전국농업협동조합장 이름으로 실린 광고 내용이다. 같은 날 정부중앙청사 앞에 2천여 농민이 모인 가운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98년부터 4차례 협상을 통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관세인하를 둘러싼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상태지만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력 한 만큼 칠레 제시안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품목별로 수입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내려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한·칠레 협정을 통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는 우리 쪽에 포도, 사과 등을 수출하고 우리는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칠레간 경합품목이 적고 계절이 반대이므로 국내 과일농가에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칠레를 중남미 공산품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광훈 의장은 "값싼 칠레산 농축산물이 관세 없이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며 지난해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국내 과채류 가격 대폭락을 가져온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한다. 중남미 국가사이엔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중남미 시장을 석권한다는 것은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대 김완배(농업경제학) 교수는 "칠레 공산품 관세율은 현재 9%에서 계속 낮아져 2010년에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라며 몇 년만 기다리면 공산품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때 협정체결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칠레와 우리의 계절이 반대여서 국내 농산물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라는 비판도 있다.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은 "칠레 과일산업은 현대화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따로 없다"고 말한다. 또한 칠레 농업을



미국계 기업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칠레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정부가 칠레와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실익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역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농업부문

을 예외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강국인 칠레와의 협정은 피하고 있고, 캐나다도 칠레와 협정을 맺었지만 '신선과일은 제외'하고 있는 상태. 이처럼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추세에도 많은 나라들은 자국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 논리만 내세워 협상을 추진한다면 이미 여러차례 난타 당한 농민들을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든 상태로 내모는 것이 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호성, 부편집인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4.19기념 제32회 동국인 등산대회

4.19혁명 41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지극심을 고양하기 위한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등산대회는 4.19정신의 계승은 물론 개교 9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이오니 모든 동국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행사명 :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2. 일시 : 2001. 4. 13(금), 08:30~17:00
3. 장소 : 북한산(집결장소 : 419 국립묘지)

*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백련사매표소→대동문→보국문→충성문→대서문→북한산성매표소→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등산로에 표식 리본을 설치하였으니 산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행코스 곳곳에 안내 및 의료지원팀(하얀모자 착용)이 있으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통편

-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 (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10분) 27번, 127번(우회함)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역(마을버스 및 학교(서클)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역 5번출구 ↔ 4.19 국립묘지 입구(운행시간 : 07:40 ~ 10:00)
5.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6. 행사내용 : 4.19 기념 추모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7. 팀 구성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시 가산점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사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8. 시상

- 가. 4인 1조팀 : 총12팀 시상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단체팀 : 금상 1팀(W1,000,000), 은상 2팀(각 W500,000), 동상 3팀(각 W300,000)
다. 동아리단체팀 : 2팀 각 W300,000
라. 교직원단체팀 : 금상 1팀(W500,000), 은상 2팀(각 W300,000)
마. 장기자랑상 : 10팀(4인1팀 기준) - 시상식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바. 행운상 : 참가 학생 중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하계방학 기간내 개교 95주년 기념 21C 지도자 연수의 일환으로 금강산 연수(00명)를 보내드립니다.
사. 단과대학 특별상 : 단과대학 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단과대학에는 특별 상금 W1,000,000을 지급합니다.

9. 접수기간 : 2001. 3. 26(월) ~ 4. 11(수) 09:00 ~ 17:00.

10. 접수처

-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서 학생복지실(본관 3층)

11. 유의사항

- 가. 접수기간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및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나. 시상식(폐회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학과단체팀 및 동아리단체팀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접수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나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라. 학과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됩니다.(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바.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사. 기타 등산대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실 ☎ 2260-30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행운상 추첨을 위한 행운권은 행사당일 출발전 대회본부에서 배부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서울캠 학생처

동약로

마지막 추위



“저 사람 뭐하는 거야?”
“그러게, 감옥에 수의를 입고
앉아있네”

봄에 불어닥친 꽃샘추위와 때이른
눈발 속에 학생들이 옷깃을 여미며
불상 앞 농성을 신기한 듯 쳐다본다.

지난달 28일부터 불상 앞
모형감옥에서 수의를 입고 학생들이
감옥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서명하고
가세요”

마이크를 통해 서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가
감옥농성과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대표자 수배반대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학생들의 힘을 모으려는
것이다.

이들이 농성을 통해 외치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50년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해를
넘기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수많은 이들이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었다. 여전히
무기한 감옥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동약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대표자들의 수배 해제를 위해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세요”

그러나 마이크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가 동약을 울릴 뿐 서명을
하겠다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뜸하다.

‘비록 모형 감옥이었지만 하루빨리
이 철폐할,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옥
안에서 우리학교 4명의 수배자들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동안 모형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학생들의 소감이다.

불상 앞 철창살에 갇혀있는
학생대표자들.

학생들을 위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대표자의 자리는 학생들이 만들어 줘야
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파출 라데라 강연

올바른 역사규명으로 미래를 연다

남아공 ‘타산지석’ 삼아 과거청산에 국민관심 필요



지난달 29일 ‘남아공 과거청산의 경험과 한국 과거청산의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이자 국가폭
력의 세기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인이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지금
까지 국가로부터 응분의 사과와 보상을 받
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과거청산 분야에서 앞선 경험을
배우고자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
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
회’에서 활동해온 파출 라데라 박사를 초청
했다. 라데라 박사는 지난달 29일 민주화운
동정신계승연대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인혁당 대책위 등 민간단체 주최의 토론회
에 참가해 “30여년에 걸친 인종차별과 가혹

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실
과 화해’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올바른 역
사규명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인혁당 대책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라데라 박사의 과거
청산 경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실질적으로 남아공에 민주국가가 수립
된 지는 7년여 정도로 ‘인종탄압국’이란
오명을 청산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
회’를 설치하고, 3년 남짓 청문회, 자료수
집 등을 통해 2만 4천여건의 피해접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체
포 기록행위, 고문 등에 의한 피해자도 접

수받아 조사자료를 확보했고 직접 찾아가
서 진술을 듣는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이중 과거를 반성하고 인권 침해를 고백하
는 가해자를 사면하여 용서하는 방식을 통
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도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법제화 과정
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
별법 제정시 △토론 위원 지명시 공개지명
할 것 △사면청문회는 방송, 신문보도 등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73년도 인혁당 사건
으로 의문사한 최중길 교수의 아들 경희대
최광준 교수(법학)는 “우리나라 특별법상
에는 조사관의 조사권한이 미약하고 조사
권은 있으나 수사권, 체포권이 사실상 주어
지지 않고 있다. 관련자를 소환해도 전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조사를 거부할 권리
가 있는데 이러한 법적 한계를 넘어 과연
일반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
는 질문을 했다.

이에 라데라 박사는 “물론 한계는 있으며
과정에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라며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집속시키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끝내며 라데라 박
사는 “사면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한국 의문
사 규명위가 수립된 전 의문사들의 진실을
밝히기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특별하지 못한 특별법

진상규명에 난항 ... 관련법 개선해야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및 거창사건 특별법, 민
주화운동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에 관
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5·18 특별법으로 광주사태 책임자들에게
대한 재판이 진행돼 형벌이 부과되었고,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피해
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졌
다. 특히 책임과 처벌의 문제가 제한적이
나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5·18 특별법은
과거청산문제에 관한 한 가장 진전된 모습
을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가해
자가 곧바로 사면되었고,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주로 보상에 치
중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제주 4·3사건 역시 그 동안 관련단체나
학계, 언론의 줄기찬 문제제기의 결실로써
99년 12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문위원 선임, 시행령 확정 등 둘러싸고
관련 단체와 정부간에 큰 진통이 있었으
며, 이례적이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 피해 사실 어
부, 억울한 피해자의 범위를 둘러싸고 진
상규명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간 죄악으로 분류되어 사망한 사람
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는 가해자의 입
장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변화이기 때문
이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경우 민주화 운동
의 개념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
가보안법 관련자, 노동운동가를 민주화운
동가로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정적인
가운데 보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 중심의 보

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대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과거 민주화운동
의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
한 세력이 면죄부를 받게 되며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심
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경우 애초에 민
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생명권 침
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그
러나 ‘의문사’만을 조사하는 특별법으로
결론이 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80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져
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한이 약하고 △
조사기간도 짧으며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양심심판자
에 대한 사면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항·
처벌조항 등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
러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와 양심선언 캠페인’
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개정운동을 추진 중
이다.

특별을 뒷받침했던 법들이 폐지되지 않
는 상태에서 과거 청산이 시작되면 국가
폭력의 피해사실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등
은 망각되어 버리고 오직 국가가 개인적
피해를 구제하는 양상을 지니게 된다. 과
거청산 운동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원상대로 복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사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서총련이여 단결하라!”

20차 대의원대회, 중앙대 개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이 지난달 31일
부터 2일간 20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서총련은 같은 날 종로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한 후 중앙대로 자리를 옮겨 오후 10시부터 사전
행사를 벌였다.

개막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시작했다. 이어 연세대와
경기대 학생회장이 서총련단식농성단·실천단 대표로
모범상을 수상했다. 이후 우리나라, 조국과 참충 등
문예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서총련 임시의장의 결의발언으로 개막제를 마치고
시작된 본 회의에서는 △임시체계 활동보고 △의정선
출 △강규개정 △총노선 확정 등이 계속됐다.

제14기 서총련 의장 후보로는 임시의장 김주홍(홍
익대 총학생회장), 박우람(경기대 총학생회장), 장정
규(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3명이 출마했다.

서총련은 대의원대회 이후 20차 정기대회 성사보
고 및 6·15공동선언 실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로 이날 행사를 마감했다.



지난달 23일 'NMD·TMD 강행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대회'가 종로공원에서 열렸다. 미국의 아욕을 상징하는 성조기 NMD·TMD 미사일, 이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을 거부하며 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NMD 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익환 목사 방북 12주년 토론회 열려

문익환 목사 방북 12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오늘
(2일)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본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와 민화협
순장대 상임의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강정구 교수
는 ‘통일방북과 남북의 통일사상’이란 주제로 문익환
목사 방북의 의미와 통일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
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화협 순장대 상임의장은 문익
환 목사가 생전에 주장했던 3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최규업 통일위원장과 전국연합
정대원 사무처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12년전 TV화면 속 문익환 목사가 북의 김일성 주석을
부둥켜안고 ‘4·2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
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속에서 자라난 통일의
씨앗은 오늘날 남북화해무드를 조성한 발판이 됐다.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는 지금, 남
북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4·2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병무청 주요제도 개선 내용 안내

국외이주사유 병역감면자에 대한 병역관리 강화

국외이주자의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 제한
병무청(청장 오경택)은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여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었고 발표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이주자가 국내대학에서 학적만 보유하고 연례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해 온 사례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또한, 국외여행 귀국보증인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 선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익을 도모토록 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
한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보증영역에 편입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 해부터 고퇴 이하는 3년, 고졸이상은 4년이 경과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없는 나도 등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소집대상자와 학력이 낮아서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정상취업은 물론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4천 5백여명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졸이하의 사람으로서 수행 사실이 있는 사람과 정신과 질환자, 문신자해 등의 사유로 보증영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집통지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 제2국민역에 편입처분키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던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발생을 또한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밖에도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산업체에서의 인력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한편, 이번 병역법시행령 개정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www.mma.go.kr 공보담당관실 Tel. 02)820-4701~3 042)481-2701~3

홀로서기와 관계맺기 교육프로그램 결혼할까? 혼자살까?

여학생실에서는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결혼할까 혼자살까?’를 실시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맺기 기술을 익히지 못한 채 성인기를 맞이하는 대학생들에게 관계맺기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특히 이성)과의 성숙한 만남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만남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꼭

- 자아정체감 형성
 -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향상
 - 민주적 남녀관계 형성
 - 사고·감정 및 행위통합의 인격체 형성
 - 의사소통기술 향상
- 이로써, 자율적 행동과 책임감 있는 주체로 이룰 것입니다

1) 내용 및 교육일시 : 2001년 4월 12일 ~ 5월 3일, 매주(목) 오후 4:30~6:30(2시간)

회차	날짜	제 목	강 사	진행방식
1	4/12	자기 일기기와 새로운 나의 이해	황정해(강사, 아동·가족전공)	이론·토론·실습
2	4/19	나와 타인과의 관계 : 색수열리	서수경(강사, 아동·가족전공)	이론·토론
3	4/26	나의 일거리를 찾아서	이혜영(강사, 아동·가족전공)	이론·토론
4	5/3	결혼할까? 혼자살까? (홀로서기와 관계맺기 교육프로그램)	통 합	이론·토론

2) 접수 및 장소 : 2001년 4월 2일 ~ 4월 10일(커피문화원, 선착순마감)
계산관 (사범대 열건동)

3) 정 원 : 15명

4) 참가비 :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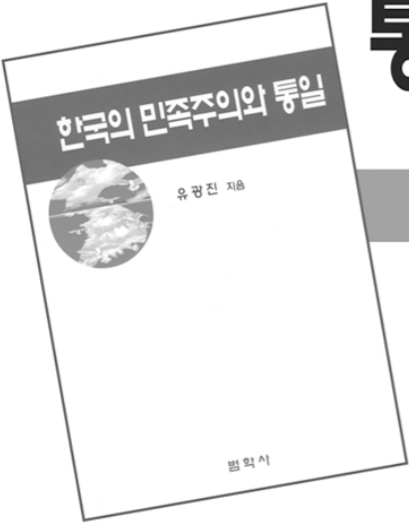
* 기타 문의는 여학생실(2260-3056, 계산관 1층)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 학 생 실

서평

통일,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되기

민족주의로 대립관계 해결 ... 남북 화해 · 통일 염원



“한국 민족주의는 단지 ‘반봉건=근대화’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 즉 민족자주성 회복, 내부 분열의 지양, 즉 국민적 통합과 국토통일이라는 과제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반민권운동만 단일 민족사회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은 친일과 반일로 나뉘어졌고, 해방 이후에도 외세의 간섭과 민족 내부의 갈등으로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반세기 이상 지속하고 있다.

남북관계 변화 낙관적 전망

이 책의 저자인 유광진(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30여년간 연구해온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 및 북한문제 연구의 권위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모두 3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당의 이념 정향과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문제의 수렴가능성)으로 남북한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부딪히는 쟁점에 대한 수렴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제3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남북한체제 변화와 통일,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와 변화가능성, 한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21세기 세계질서와 남북한)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통일문제에 있어 민족주의가 요청되는 이유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감정적인 ‘적’ 개념의 첨예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민족주의를 ‘기본적인 준거’로 삼아 민족 재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는 단지 ‘반봉건=근대화’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 즉 민족자주성 회복, 내부분열의 지양, 즉 국민적 통합과 국토통일이라는 과제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민족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다.

북한, 공존 · 공영의 동반자

남북한은 분단 55년만인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존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먹고 먹히는 통일’ 또는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화해 · 협력, 공존 · 공영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민족통일의 당위성

지금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형’과 ‘내정형’의 복합적 산물인 점에서, 분단 극복은 외세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내부갈등을 극복하는 통일지향적 자세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주어진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키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달성할 것인가는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의 신질서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 책의 저자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을 여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 볼 것을 권하면서 서평을 마치려 한다.

고 유 환 시과대 북한학과 교수



김상현 교수의 역사이야기 (2)

젊은 날의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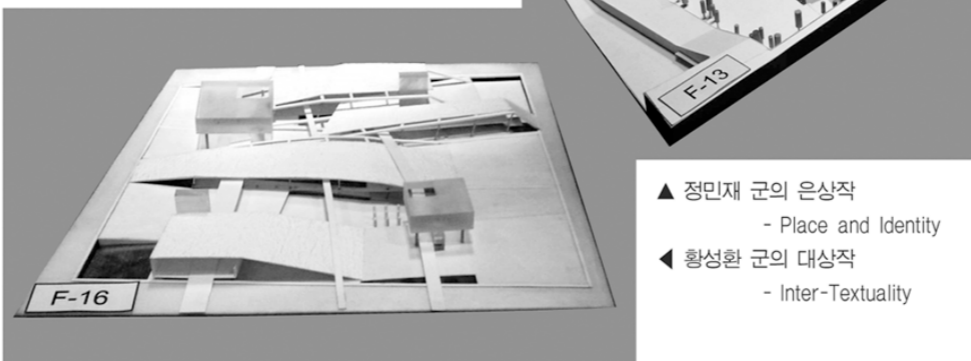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 충도(忠道)를 지켜서 과실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을 어기면 하늘의 큰 죄업을 짓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면, 가히 용납될 수 있도록 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서원했다. 시경·사서·서전·예기·좌전을 차례로 습득할 것을 맹서하되, 3년으로 하였다.’ 이는 임신서기석의 내용이다. 7세기 전반, 진평왕 34년(612)으로 추정되는 임신년에 신라의 두 젊은이는 그들의 꿈과 서원을 통해 새겨 남겼던 것이다. 하늘이 굽어보는 앞에서 신미년에도 임신년에도 맹서했다. 그들은 유가의 주요 경서를 공부하고자 했고, 어지러운 세상에도 과실 없기를 서원했으며,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맹서했다. 이들은 자기 충실과 사회 봉사함을 함께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 무렵 신라 사회에는 화랑도로 대표되는 젊은 청소년들이 내일을 향해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들은 삼마도의(相磨道義)하고 정심수신(正心修身)하여 잘못 없기를 염원하며, 자신을 닦아 내일을 기약했다. 군자를 꿈꾸던 귀산과 추항은 원광법사를 찾아가서 세속오계의 가르침을 받았고, 화랑 김유신은 중앙의 석굴에서 삼국통일의 염원을 맹서하고 기도했으며, 남도 검군은 대장부의 기상으로 살고자 했다. 이러한 기풍은 임신서기석에도 강하게 스며 있다. 이들이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임신서기석은 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석문이 발견되었던 경주 석장동의 언덕에는 경주캠퍼스가 자리잡았고, 학생회관 앞뜰에는 신라 젊은이의 맹서를 다시 새긴 비석이 하나 서 있다. 그리하여, 신라의 옛 맹서는 다시 이 시대 젊은이의 서원으로 꽃피어 난다. 꿈 많은 젊은 시절에는 내일을 향한 서원도 크다. 스스로 다져 보는 맹서, 그 서원을 굳이 붙여 새기지 않아도 좋다. 마음에 새기는 서원이 크고 단단하기를 바란다. 서원의 힘은 크다. 젊은 날 마음에 새긴 서원은 일생 동안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된다. 서원은 어렵고도 야속한 세상을 건너 줄 튼튼한 다리외도 같은 것이다. 10바라밀 중에 원바라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까닭이다. 서원은 갑옷과도 같은 것이다. 화살이 날고 같이 번뜩이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갑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듯,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이라는 튼튼한 갑옷을 입어야 한다. 물론 그 서원이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장(場)’에서 만나는 건축의 세계

지산공모전 2명 수상 ... 대상 황성환 · 은상 정민재

우리의 옛 가옥은 여성들의 주변 생활공간인 안채, 남성들의 학문 탐구의 장인 사랑채, 일꾼들이 사용하는 행랑채 등 그 공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했다. 또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안채는 대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았던 것처럼 용도에 따라 공간 위치도 달라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각각의 구조물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지산장학회는 참신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건축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2001 지산 학생건축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는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앞두고 대구를 보다 나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대회이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21세기의 시작에 발맞춰 지난 해부터 3년간 ‘문(門)-장(場)-관(館)’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에 그치는 설계가 아니라, 전체 조화를 고려해 각 구조물과의 연관성을

중요시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파리의 개신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며 사무실, 전망대 등으로 이용해 실용적 측면까지 겸비하고 있다. 지난해 주제인 ‘문(門)’도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섬유도시라는 대구의 특징을 상징하면서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한 여러 기능을 두루 갖춘 도시관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문(門)을 통해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느낀다면, 이어 ‘장(場)’이라는 마당은 옛 사람들이 도성 안을 생활의 터전으로 여겼던 것처럼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이번 공모전은 이 장(場)을 ‘건축박물관’으로 설정해 사람들이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건축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본교 건축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황성환 군과 정민재 군이 각각 대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황군의 ‘Inter-Textuality’는 이질적 느낌의 도시와 자연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작품이라는 평이다. 그리고 정민재는 느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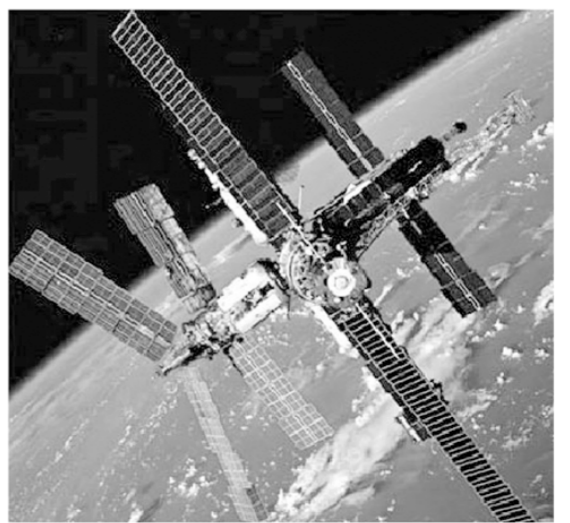
수직적 문(門)의 딱딱함을 물결치듯 흐르는 지붕의 부드러움으로 융화시켜 다른 작품과 차별성을 두기도 했다. 이에 황군은 “도시에서의 장(場)을 도시 그 자체로 풀었다”며 “도시적 텍스트에 지붕을 녹지로 깔아 편안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Place and Identity’로 은상을 수상한 정군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불상 주변으로 모이는 학생들을 보고 작품의 컨셉을 떠올렸다”며 “장(場)의 뚜렷한 공간적 의미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인 ‘관(館)’에서는 대구의 이미지를 총 정리하는 기념관으로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기획은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대 이正道 교수는 “문(門)-장(場)-관(館)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하나의 이상적 건축공간을 만들어 낸다”며 “건축산업에서 갈수록 독창적인 단일 건물보다는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설계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미르호의 생애...’ 공개 세미나

천체관측 동아리 자연과학연구회(회장=이우영·반도체2, 이하 NSA)는 지난달 30일 ‘미르호의 일생, 2028년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미르호는 1986년 구소련에서 발사된 최초의 우주정거장이다. 그동안 약 8만8천번 지구궤도를 돌며 지구상에서 불가능했던 무중력 실험들을 가능케 했던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나 미르호를 유지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계속되는 케도 이탈, 우주선 도킹 실패 등으로 미르호는 폐기돼야만 했다. 따라서 15년간 우주공간을 떠돌며 활동하던 미르호는 지난달 23일 남태평양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미르호의 일생’에 대해 발제한 이우영 NSA 회장은 “비록 미르호는 폐기됐지만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활동을 벌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발제도 함께 진행했다. 지구로 근접해 통과하는 2천여 소행성들의 규모나 무게, 구성성분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지름 1.6k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예상되는 지진이나 화산폭발, 산성비 등의 피해들을 분석했다. 특히,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영화 ‘딥임팩트’에서 본 내용처럼 파도, 해일 등이 거세게 일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정리하며 이우영 회장은 “계속적인 관측으로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해 알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교수동정

- ▲송석구 (철학) =지난달 13일 열린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돼 6월 이사회부터 이사로 활동 예정.
▲김선근 (인도철학) =지난달 29일 일본 주재 승왕 달라이라마 동아시아 대표인 사틀린포체 초청간담회 개최.

- ▲김영민 (영어영문학)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덴버, 콜로라도에서 열린 '3rd Hopkins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
▲곽노성 (국제통상학)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협상'에 참가.

- ▲이승영 (국제통상학)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천진, 북경에서 한국무역학회가 주관하는 '장보고 무역 체험' 인솔.
▲조영석 (경영학 컴퓨터학)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01 World Wide ERC' 참가.

- ▲김주환 (경영학 정보통신학) =지난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대학으로 '국제수준에서의 식량농업통계의 품질' 연구를 위해 파견.
▲박명숙 (경영학 가정교육학) =지난달 1일부터 1년간 '사회 소비자 중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미국 콜롬버스로 파견.

작은영화제

작은영화제

서울캠 영화영상학과는 동계 워크샵 작품과 수업 과제 출품작을 모아 작은영화제를 연다. 총 30분 분량의 '오렌지', '문(門)', '아침이 없는 서점',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가위바위보' 등 다섯 작품이 매회 상영된다. 창의적인 단편들의 신선한 감각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늘(2일)까지, 7시, 90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3671

제1회 으뜸제, 오는 5일 개막

한국대학연극연맹 으뜸(회장=김병석·고려대 신병3)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학로에서 제1회 '오름제'를 개최한다. 길놀이와 노는관, 연극관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되는 이번 '오름제'는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민속극연구회 '탈'은 축제 첫날 개막제를 여는 길놀이로, '극예술연구회'는 폐막제를 맡는 공연 '아름다운 시간'으로 으뜸제에 함께 할 예정이다. 문의 3672-4123

민음협, 전통민요음반 출판

한국민족음악협회(회장=김철호, 이하 민음협)는 김예경(소리매 연구소 대표) 씨와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민요음반 '점아점아콩점아'를 출판했다. 민음협은 이 음반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전통 음악을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만 여기는 젊은 세대에 대해 흥겨운 우리 소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민요를 알리기 위한 음반 '점아점아콩점아'는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민요와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창작곡악동요 등을 담고 있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4월 일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김정숙, 이하 문예진흥원) 주최 공개문화강연 '금요일의 문학이야기'의 4월 초대작가와 일정이 확정되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학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리는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는 독자와 작가가 마음을 열고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Table with 3 columns: 날짜, 작가, 이야기 주제. Rows include 4/6 허영자 시와 현대의 삶, 4/13 허일지 작가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존재다, 4/20 조정래 태백산맥을 쓰던 시절, 4/27 이승우 소설과 신(남양주 문학기행)

혼돈의 죽음



송재운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남해 제왕은 이름이 숙이고, 북해 제왕은 이름이 흩이며, 중앙 제왕은 혼돈이라 불렀다. 숙과 흩은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서로 만나곤 했는데,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하였다. 숙과 흩은 이러한 혼돈의 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상의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일곱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것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먹기도 하고, 숨도 쉬는데 유독 이 사람(혼돈)만이 없으니 우리들이 그에게 구멍을 뚫어 줍시다" 그래서 혼돈의 얼굴에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는데, 7일이 되는 날 혼돈은 죽었다. 마침 만우절에 떠 올려 본 장자의 우언이다. 우언이란 역시 꾸민 말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만우절에 하는 것

같은 거짓말은 아니다.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언의 말속에는 깊은 철학적 진리가 들어있고, 인생을 관조하는 맑은 지혜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선한 상상력과 깊은 통찰력을 갖게 만든다. 위의 이야기는 장자 내편 가운데 끝낸 웅제왕 마지막 장에 나온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남해의 숙은 상(象)이 있는 것을, 북해의 흩은 형(形)이 없는 것을, 중앙의 혼돈은 청탁을 구분하지 않는 자연을 비유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숙과 흩은 인위(人爲)를, 혼돈은 무위(無爲)를 상징하고 있다. 쓸데없는 인위의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지 들려주는 것이다. 일곱개의 구멍은 하나의 입, 두개의 눈, 두개의 콧구멍, 두개의 귀를 말한다. 사람은 이것들이 얼굴에 있어 사람

달하나 천강에

구실을 한다. 그러나 혼돈은 이것들이 없는 게 정상이다. 혼돈 그대로가 본래의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숙과 흩은 이 혼돈을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다 그만 생명을 잃게 만든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온전한 생명을 보전할 것인데 인위적인 억지를 가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제주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멍이 뚫리고 있다 한다. 숙과 흩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물을 깨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하나의 혼돈(자연)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만우절에 장자의 우언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의 무위사상이야말로 오늘날 극단적 인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지가 아닐까 해서이다.

신(新) 삼국지, 출판업계 주도권 분쟁

도서할인율 10%에 합의... '서점조합연합회' 반발 예상

한(漢) 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4백년이 흘러 황제권이 약해지고 민심은 도탄에 빠져 천하는 혼란이 극에 달한다. 각지에서 영웅호걸들이 일어나 위, 촉, 오의 삼국으로 분열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삼국의 혼란기를 '삼국시대'라 부른다.

인회의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는 별도로 추진한 on-line서점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점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출판인회의만의 생각일 뿐"이라며 "서점조합연합회는 여전히 도서정가제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출판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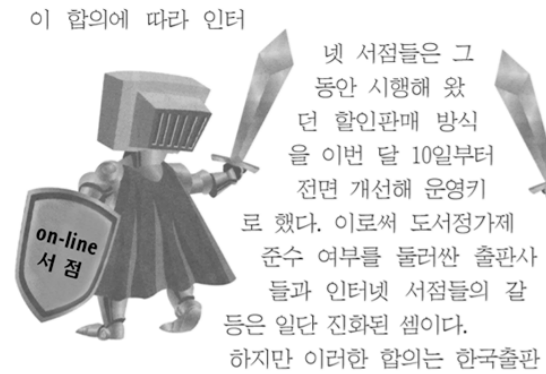
바이어로 2001년 우리 출판업계는 on-line서점, off-line서점의 갈등과 전자책의 등장으로 출판시장을 둘러싼 파투기는 삼국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on·off-line서점의 갈등은 인터넷 서점들이 속속 등장, 10%에서 많게는 8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면서부터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높은 할인율은 자연스레 네티즌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on-line서점에는 활성화, 취약한 유통구조의 off-line서점에는 큰 타격을 가져왔다.

'선성탈인(先聲奪人)'은 진(晉)나라 군대가 정나라를 구하기 위해 초나라 군대와 충돌했을 때 "남보다 앞서 이 기러기 단반에 상대방의 기를 꺾어야 한다"는 손숙오의 말에서 유래된 말로 우선 자기의 성세를 올려 상대방을 위압하거나 한 발 앞서 주도권을 잡취 하라는 뜻이다. 이번 협약의 '선성탈인' 대상이 on-line서점일지 off-line서점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한 가지 잊지말아야 할 것은 소비자가 없는 출판시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세를 몰아 on-line서점들은 도서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무료 배달 등 파격적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휘어잡았다. 이는 지난 한해 off-line의 전국 영세서점 1천여 개가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입과 동시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측이 on-line서점에 납품하는 출판사와 거래를 중단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한국출판인회의'와 '인터넷 서점협회(가칭)'가 도서할인판매율에 대해 합의, 그간의 논쟁에 잠시 침표를 찍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점들에 대해 10% 이내의 도서 할인판매율과 5% 이내의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며, 우송료는 소비자 부담으로 별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서적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지목하는 서적에 한해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

이 합의에 따라 인터넷 서점들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할인판매 방식을 이번 달 10일부터 전면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둘러싼 출판사들과 인터넷 서점들의 갈등은 일단 진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한국출판



손상민 기자 seon9232@dongguk.edu



'리멤버 타이탄' 시사회를 다녀와서



인종의 벽 허물고 국적을 뛰어넘어

색각이 불완전해서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나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색맹이라 부른다. 색맹은 모든 빛깔을 구분하지 못하고 명암만을 구분할 수 있는 전색맹과 일정한 빛깔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색맹으로 나뉘는데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홍록색맹, 초록색과 노랑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청황색맹이라 한다.

주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미국 여타 주의 어떤 도시보다 다양한 인종이 융화되어 살고 있다 한다.

그러나 오는 14일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는 '흑백색맹'이 새로 등장할 예정이다. 바로 윌트디즈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리멤버 타이탄(Remember the Titans)'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내내 떠오른 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제3세계 혹은 약소국가 사람들이다.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만큼이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차별을 받을 뿐이다.

성탄절이나 국경일보다 풋볼시즌을 더 큰 축제로 여기는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인종차별금지법'으로 백인과 흑인 고등학교가 통폐합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 학교에 있던 풋볼팀이 '타이탄'이라는 팀으로 합쳐지는데, 이들은 그간 쌓아온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러한 인종간의 갈등은 풋볼팀 감독 자리를 놓고 벌어져 기존의 백인감독 '빌 요스트'와 새로 부임한 흑인감독 '허만' 간의 신경전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허만' 분이 인종에 관한 편견과 차별보다는 풋볼에 대한 열정으로 다가서자 풋볼팀 내부에서 서서히 인종을 넘어선 믿음과 우정이 싹트게 된다. '풋볼'이라는 매개체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와 관계가 먼 국가들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치는 '세계화'나 '지구촌 한식구'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영국 등으로 대변되는 서방 부유 국가이고 우리가 함께 하려는 사람들 역시 서방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뿐이다. 이러한 잘못된 '세계화'의식이 인종차별보다 더한 '국가차별'의 형태로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야기처럼 사람을 만나고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이지 그 사람의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인식의 색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리멤버 타이탄'은 1971년 미국 버지니아

pisik20@dongguk.edu

2001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2~4 Fax. 2268-7851

세권의 문학사로 한·일 양국의 가깝고도 먼 거리를 극복한다

일본 메이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30면 / 1만2천원



1868~1912년까지 일본현대문학의 태동과 정착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메이지 시대 문학의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나카무라 미쓰오의 일본 메이지 문학사.

일본 다이쇼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05면 / 1만원



1910~1927년까지의 다이쇼 시대의 문학사를 현장감 있게 기술. 이 시대의 화려함 속에 깃들인 어둠을 보여주는 우스이 요시미의 일본 다이쇼 문학사.

일본 쇼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92면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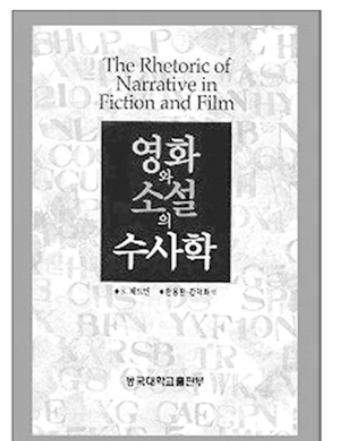
1927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자살에서 패전으로 인한 점령과 재건에 이르는, 쇼와 시대의 문학사를 정신사적으로 분석한 히라노 겐의 일본 쇼와 문학사.

서사적 분야의 명저 '이야기와 담론 - 소설과 영화의 서사 구조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역작.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한용환·김덕화 역 / 신국판 / 320면 / 1만원

'이야기와 담론'의 저자, S-제트먼이 십 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또 하나의 서사이론의 지침서!



서사학자인 채트먼이 '이야기와 담론'으로 우리들에게 언어 서사물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은 영화를 서사적 분석의 중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야기와 담론'의 한계를 훌륭히 뛰어넘어 영상 서사를 언어 서사와 나란히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체비평

TV

몽골리안 루트

“장엄한 몽골, 거대한 계획 그러나 시청자는 눈을 감았다”



몽골리안 루트의 삶을 재조명한 KBS의 8부작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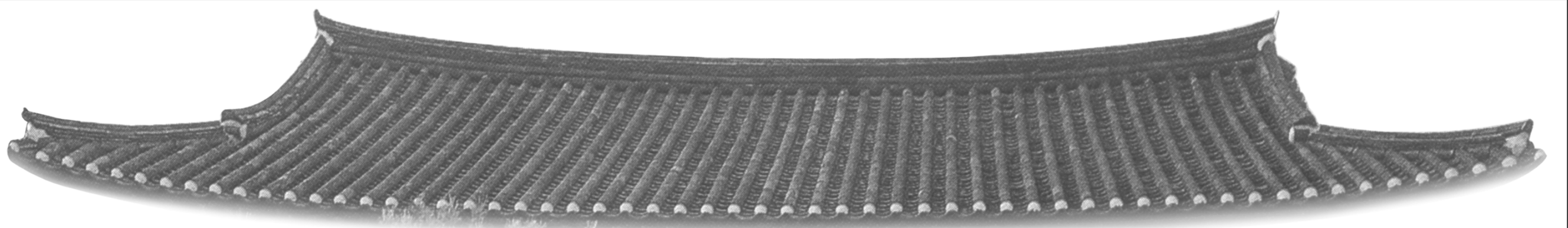
새천년 기획으로 준비기간 10년에 제작기간만도 3년 6개월, 10여여원이라는 국내 다...

의미심장하다. 특히 나무 나이테로 기후와 생태환경을 측정하는 연륜측정학, 세형날날 제작 기술을 복원해 보여준 실험고고학, 대륙 각지에서 발견된 미이라의 유전자 분석해 감마...

한국의 몽골리안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제작진이 밝혔듯이 “장기스칸으로 대변되는 몽고제국의 역사와 풍습을 다룬 다큐”...

지 못하고 다소 난해하게 전개돼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반성할 부분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오염되지 않은 자연풍광의 아름다움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연한 고대의 모습, 과학적 고증이 보는 재미를 더했지만 처음에 흥미를 잃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조은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기획부장



김치, 역사를 버무리고 전통을 담는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지역문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튼튼한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양문화에 어느새 익숙해진 우리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사는 듯 하다.

“김치 없이 못살아~ 정말 못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김치민족’이다. 이는 서울대 조종일(국어국문학) 교수가 한국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중 ‘김치를 잘 먹느냐’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를 발견하는 풀이다. 그들은 가까운 슈퍼에서 원하는 양만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김치를 번거롭게 달굴 필요가 무어냐고 말한다.

소금에 절인 야채의 맛,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 김치는 고추라는 변수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독창적인 식품이 된다.

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만점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구나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는 김치는 건강음식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제 한국의 ‘김치’가 먼저냐, 일본의 ‘기무치’가 먼저냐 하는 터무니없는 논쟁은 그만 두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처럼 김치는 한국의 전통음식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이제 박물관에 저장한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 고추·마늘·파·생강·젓갈 등의 양념으로 버무리 담가 먹는 한국의 전통 밑반찬이다. 농경문화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김치는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실, 기념품 판매소 등 다양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김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지난해 제3차 아셈 컨벤션센터로 확장, 이전한 박물관은 향토김치를 조사, 영상화한 것을 비롯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치강좌를 실시했다.

김치의 화제연구원은 “김치는 단순한 식품이기에 앞서 우리 민족 정신이 담겨있는 고유의 전통문화”라며 “국제적인 관심은 높아가지만 정작 내국인의 관심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다.

매년 김장이 한창인 11월이 되면 조용하던 남산골 한옥마을에 생기가 돈다. 도심 속에서도 우리네 전통을 지켜가며, 옛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옥마을에 ‘김치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김치 축제’로 유명한 곳이 또 있다. 바로 전국에서 음식 맛이 좋기로 정평난 전라도 광주이다. 매년 가을이면 광주에서는 대대적인 김치 축제가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한·일간 식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해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김치 축제’가 단순히 단발성 행사가 아닌 세계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행사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손상민 기자 neo8292@dongguk.edu



메아리

인물학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 학문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체계적 지식’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 경제의 산 증인 정주영 씨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는 경영철학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현 사회는 정주영을 불도저같은 도전 정신과 진취성으로 시대에 적절히 대응한 신화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다. 또한 군사 문화적 노사관계로 인한 노조탄압도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다. 지난 92년 무모한 대선 도전으로 현대의 위기를 불러온 적도 있었다.

사정권 시대에 걸맞은 황제경영방식이 과연 21세기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창호 대학부장 windy@mail.dongguk.ac.kr

소나기

故정주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디딤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생무상
△대선은 실패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래도 죽기 전에 통일을 생각했으니 다행이군.

△정치는인일까? 아니면 경제인일까?
실패한 정치인! 성공한 경제인!
△시련은 보고 있어도 실패는 못 보고 가셨군요.
△시련도 없고 실패도 없지만 죽음은 있다.
△합부로 고인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당신은 그분의 1/1000의 노력을 해보았나?
△왕회장이 남긴 빛과 그림자 가운데 빛만 오래가길...

△그래도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그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고 그 때문에 경제가 죽었다.
△정주영은 그냥 머리 좋은 장사꾼... 타이밍이 좋았을 뿐 과대 평가 하지 말길...
△뛰어난 사업가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뛰어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부도덕과 타락을 요구했다.
△정치 실패만 안 했으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으리.
△그는 모든 인생의 산 증인이다.
△누구나 흠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의 흔적은 같지 않다.
△경쟁부실은 있어도 부도는 없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여전히 억울하다!
△맞아! 그러나 왕자의 난만 없었다면...
△그냥 돈 많은 기업가가 죽은 거다.
신문 제1면에 나오는 건 웃긴거다.
경제면도 아니고... 정경유착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실패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겠지"
△북한에 환소는 누가 끌고 가나?
△정경유착도 같이 가지.
△왕회장은 검소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 돈을 불러 주나?
그런 건 사회에 환원해!
△정주영, 며칠만 살아 오늘 현대주식의 바닥을 보았다면 이말 한걸 후회할걸.
△기업계 연출구도를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의 업적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서울 ☎ : 22603491· 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니우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 버섯찌개(1500)
화	불고기비빔밥(1500) 건새우군대국(1500)
수	제육두부찌개(1300)
목	오징어달걀(1500) 탕수육백반(1500)
금	양지탕수(1500)
금	양송이볶음밥(1300) 맥북이소파게티(1500)
금	소고기국밥(1500)
금	게맛살김치(1500) 오므라이스(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사골우거지탕(1500) 해물된장떡볶이(3000)
화	해물달걀(1500) 더덕구이(3000)
수	설렁탕(1500) 만두버섯전골(3000)
목	만두탕수(1300) 케라리아스(3000)
금	짬뽕국밥(1500) 육개장(3300)
금	산채비빔밥(1300) 가지미꾸이(3300)
금	잡채밥(1500) 순두부찌개(3000)
금	쇠고기우육백반(1500) 닭갈비(3300)

(단위:원)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역사재해석의 어려움

지나호 '역사 재해석의 의미'를 찾아 기사를 매우 흥미로웠다. 요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논란이 많은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시대와 민족 및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재해석되는 역사는 때때로 이해 관련 집단들에 의해 쉽게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 왜곡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역사학은 학문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쓰여질 운명을 타고난 학문이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와 더불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황주영 (이과대 화학3)

원론적 기사흐름 아쉬워

학술면에 실린 P2P 관련 기사는 식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뉴스나 일간지에서 한참 떠들썩하게 P2P에 대해 상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학술면의 P2P 기사는 대부분이 P2P에 대한 설명과 해킹이나 보안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 등을 교과서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기가 지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룬 시각으로 접근한 기사를 보면 독자를 해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현정 (인문대 중문2)

미소 잃지 않는 여유 있는 삶 되길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운 모습,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는 갓난 아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재롱...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소. 미소가 우리의 입가에 양각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란 거친 삶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신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입모양새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담들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보통 이성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등의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망들리게 해 덩달아 표정마저도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무 가식없이 웃었던 그 어린 시절의 웃음을 떠올려 보자. 그런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왜 우리 잊지 못하는가?

모든게 뜻대로 안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감자.

그리고 담장 너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고민을 천천히 곱씹어 보자. 그럼 지금 자신에게 닥친 크나큰 고민들은 십여년이 지난 후에 바라보면 "내가 그랬었나?"하고 슬쩍 웃으며 넘어갈 일이 될지도 모른다. 삶이 괴로울 때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웃자.

김상용 시인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다. 그 시의 한 구절인 "왜 사나온 웃지요"라는 말처럼 여유있는, 그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박정환 (사과대 사회2)

남의 우편물도 소중하게 관리해야

얼마전 경주캠 학생회관 1층에 있는 우편함에 편지를 찾으며 간 적이 있다. 오랜만에 친구가 학교로 보낸 편지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봉투가 아무렇게나 찢겨지고 편지지는 한 장이 사라진 채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누군가 남의 편지를 읽으면서 웃고 재밌어 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피해를 본 사람은 여간 기분이 언짢아지는 게 아니다. 특별히 우편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난처해졌고 하소연도 못한 채 씁쓸하게 돌아서고 말았다.

부득이하게 학교 우편함을 사용해야 하는 자취생들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우편물이 찢어져서 곤란을 겪게 되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충환아, 생일 축하한다.
-동진, 진우, 동환
△2:8 님의 생신 축하합니다. -아총 고프
△생자대 01 분이, 유미 님이 생일 축하합니다.
-수지, 은경, 나현
△4월 2일 공과대 01 김인경 생일 축하합니다!
-법학과 01 H S & 사과대 01 H Y
△보도부 43h 지용, 재중, 지사, 정연, 진희야!
-늦었지만 방송국 합력한 거 축하해.
-보도국장 형이
△민정아! 생일 축하해~
-현우를 24기

열심히하십시오

△노래를 열심히 합시다. -새벽비빔
△민선, 민영, 영화야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악비리

학내 동아리 공연 즐기는 문화생활

저렴하고 질적 수준 갖춘 공연 만끽

"당신에게 문화생활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장이나 영화관을 가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는 것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혹자는 인사동의 미술관이나 패션쇼장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연극을 보거나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매니아나 관련직종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연이나 연극 등의 가격이 도시민의 문화생활 능력에 그리 만만치 않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혹시 2천원짜리 연극을 보았는가? 아니면 2천원짜리 락공연을 보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학교내 가장 가까이 있는 계사관으로 가보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아마도 '국회', '피어리스턴', '탈' 등의 동아리들이 공연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내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

서울캠의 공연동아리는 7개다. 이들은 1년에 평균 3차례이상 공연한다. 그럼 학내에서 1년에 21개의 공연이 열

주 벽(酒癖)

새우젓으로 소주를 마신다
새우가 소금으로 세월을 건널 때 나는 소주로 세상을 건넌다

둘 다 전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하나는 점점 맛이 들고 하나는 짝짝 맛이 간다는 게 다르다

아무리 견디고 견디어도 숙성되지 않는 나날들

새우 또한
삼지는 않았을 테지
까만 눈알 속의 경계심이며
물살을 튀기며 도망치던 허리핀,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것을 허물어
희멀건 국물로 밀어내고
소금으로 벽을 세운다는 게

새우가 새우 아닌 것으로
자신을 새우듯이
나도 내가 아닌 것으로
세울 수 있다면

맛으로 세워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結晶)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조유인 (인문대 영문3)

통학버스 이용 ... 도덕성·예의 부족

주인된 모습에 인색한 학생들 반성해야

개강 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주캠에서는 통학버스 문제로 많은 말들이 오갔고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포항, 부산, 대구, 울산 등 통학생이 많은 우리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통학 버스가 늦게 생긴 편이다. 시행초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할 정도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 승차 장소와 운행코스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 믿는다.

그러나 통학버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로하던 학생들에게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예의범절과 도덕성을 찾아보는 합당하다.

버스 내에 쓰레기를 버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한 버스 기사 분은 "학생들 모두 자식 같고 동성 같아서 한 걸음이라도 덜 걸게, 덜 불편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런 물상사한 모습을 보면 잘해주고 싶던 마음이 사라진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나는 그 기사 분의 말씀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권리를 주장 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인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인색한 것이 지금 학생들의 모습이다.

주인의식을 떠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공공질서, 도덕성, 예의범절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것들을 잊어 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마음이 씁쓸해진다.
김수경 (인문대 한문3)



은방글

축하합니다

△'살림'씨 첫 월급 축하합니다.
△은경언니, 현철오빠! CC 축하드려요~
△은희야! KFC 취직한 거 축하해. 월급 타면 한턱내라!
-친구
△20대 영문학과 학회장 오빠 4월 20일 생일 축하해요.
△조! 4월 5일 생일 축하한다!
-團史원가
△낙호 형아 생신 축하합니다.
-from규복
△은진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D.N.C

열심히하십시오

△분배! 올해는 분배하자!
-국문과 학우
△개통 신입생! 열심히 해서 우습습니다.
-藥
△삼소리 신입생 환영회 집행부님 열심 미 합니다.
-노힐
△제21대 국문과 집행부님들, 팜플렛 우리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숙음배추국(1300) 마파두부달걀(1800)
화	삼색볶음밥(1600) 불고기달걀(1700)
수	미역국(1300) 돈까스(1500)
목	햄스테이크(1800) 스테이크(2000)
금	감자양파국(1300) 미트볼달걀(1600)
토	쇠고기볶음밥(1700) 전주비빔밥(1800)
일	복이채국(1300)
일	닭갈비볶음밥(1700) 숙종이국밥(1300)
일	김치국(1300) 참치아채비빔밥(1500)
일	양송이볶음밥(1600) 탕수달걀(1800)
일	미역두부해물장국(1300)
일	김치볶음달걀(1600) 정타국밥(1300)
일	하루나된장국(1300)
일	햄이채볶음밥(1600) 정타국밥(1300)

(단위:원)